

索引史研究

朴 俊 植*

目 次

I. 緒論	1. 西洋索引史
II. 索引의 意義 및 機能	2. 中國索引史
1. 索引의 語源	3. 韓國索引史
2. 索引의 意義 및 機能	IV. 要約 및 結論
III. 索引의 歷史	

I. 緒論

모든 學問을 研究하는데는 일정한 過程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研究하고자 하는 分野에 대 한 正確한 概念의 定立와 그것의 發展過程을 探求하여 學問의 體系를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學問의 體系 위에서 現況을 살피고 未來를 預測하는 것이 타당한 學問研究의 順序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最近 우리나라의 索引研究에선 이러한 理論的 體系가 없이 現場研究가 바로 이루어지는 感이 없지 않다. 그동안 索引의 心要性이나 그 種類 등에 관한 論文이 發表⁽¹⁾되어 索引에 대한 關心을 끌려 일으킨 바 있고, 근자엔 定期刊行物記事索引에 관한 한 두件의 論文이 發表되어⁽²⁾ 學界의 關心을 끌바 있으나 現行索引에 대해 記述的(혹은 技術的)인 면에서 考察하였고 理論的 體系化는 試圖하지 않았다.

이러한 先行研究結果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의 索引研究는 아직까지 基本的 方向設定을 못하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學問研究者들에게 있어서 索引의 存在가 必須的인 參考道具가 되듯이 圖書館學을 研究하는 사람들에게는 索引의 本質을 밝히고 그 發展過程을 探究하여 理論的 體系를 세우는 일이 시급히 研究되어야 할 課題인 것이다.

中國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索引이란 用語는 비교적 近年에 쓰이지기 시작했으나 索引으로서의 機能을 가진 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단지 20세기 이후의 西洋索引法

*啓明大 圖書館 參考司書

† (1) 李鳳順, 索引小考, 國會圖書館報, 서울, 國會圖書館, Vol.6, No.7.(1969.9) pp. 9—13.
 (2) 崔昌培, 韓國의 定期刊行物記事索引誌에 대한 概觀的研究, 서울,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3.

2 도서관학논집

이 도입되고 난 뒤 이를 위주로 하여 發展하고 있기 때문에 索引이라면 곧 現代索引이 연상될 뿐인 것이다.⁽³⁾

그러므로 傳統의 索引의 發展過程을 밝히며 이것이 現代의 西洋索引法과 融合하는 過程을 探究하여 脈絡을 있게 하는 研究는 곧 索引을 學問의 한 領域에서 體系化시키는 가장 基本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考에서는 우선 索引의 概念을 明確히 밝히 이의 包括範圍를 確定해 주며, 둘째 索引의 發展過程을 西洋, 中國, 우리나라의 세 分野로 나누어 考察해 보므로서 각者の 特性을 알고, 東·西洋의 索引이 가지는 相互關聯性을 究明하여 索引史研究를 體系化 하도록 試圖하고자 한다.

II. 索引의 意義 및 機能

1. 索引의 語源

索引이란 英語 index에 대한 譯語이다. “index는 라틴어의 indicare에서 나온 名詞로서 처음엔 ‘알게 해 준다’, ‘指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었거나”⁽⁴⁾ “집게 손가락 (fore-finger)을 의미했는데 이는 집게 손가락이 가르킬 때 쓰여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⁵⁾ 오늘날 西洋圖書에서 參照表示에 文字대신 索引記號 (index finger)인 집게 손가락을 그려 넣는 습관이 여기서 由來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라틴어 indicare는 in에다 dicere 또는 dict를 합한 것인데 라틴어 in은 ‘against’라는 뜻이며 dicere, dict는 ‘to speke against’ 또는 ‘to single out’라는 意味를 가지고 있다.”⁽⁶⁾ 따라서 “라틴어 indicare는 ‘뽑다’, ‘~에 대해 말하다’라는 뜻이며, 책속의 내용을 指示해 주는 内容目次로서 쓰일 때는 복수가 indexes이고 다른 경우에는 모두 indices를 쓴다”⁽⁷⁾

“index란 用語가 ‘집게 손가락’이라는 뜻으로는 1398년 ‘The seconde fyngreyght index ……for by hym is moche shewhynges made’란 문장속에서 처음 쓰여졌다”⁽⁸⁾는 기록이 있다.

한편 오늘날과 같은 索引의 概念으로 쓰여지기는 “1578년 Dyte의 Dodoens란 책속에서 ‘Index Latinorum Nomimum’이라는 句簡과 ‘Index appellationum et nom-

(3) 물론 이러한 추정은 20세기 中葉이후 西洋索引法을 도입한 索引이 그 수에 있어서 傳統의 圖書目錄類索引을 難到하고 있다는 데에に基づ친다.

(4) Shipley, Joseph T. *Dictionary of Word Origin*, 2nd. ed.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Inc. 1945. p.191

(5) *Oxford English Dictiona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Vol.5, 1961. p.202.

(6) Shipley, Joseph T. *op.cit.*, p.191.

(7) loc. cit.

(8) *Oxford English Dictionary*. p.202.

enclaturarum omnium stirpium 에서 비롯된다”⁽⁹⁾는 說이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빠른 1555년에 나타났다. 즉 “1555년 Paris에서 *Nomenclator Insignium Scriptorum* 이란 書誌가 發行되었는데 그때 副題를 ‘Indexque totius Bibliothecae atque Panectarum...viri C. Gesneri’라 하여 처음 index란 用語를 사용했다”⁽¹⁰⁾

한편 中國에서의 索引에 대한 語源과 初期의 意義를 살펴 보면 :

“索은 ‘求하다’라고 되어 있다 「集韻禮曲禮」에 보면 ‘大夫以索牛’라고 썼으며 그注에 보면 ‘索求得而用之’라고 하였다”⁽¹¹⁾ 이는 곧 ‘求하여 쓴다’라는 뜻이 된다.

‘引’은 ‘相牽’으로 「禮檀弓」에 보면 ‘喪服兄弟之子 猶子也蓋引而進之也’라 하고 注에 ‘牽引進之同於已子’라 하였으며 「史記 韓長孺傳」에 보면 ‘奉引墮車蹇’이라 하고注에 ‘爲天子 導引而墮車跛足’이라 되어 있다”⁽¹²⁾ 이는 곧 ‘끌어 당기다’라는 뜻이 되니 語義에 따른 索引의 概念은 ‘求하여 끌어 당긴다’라는 뜻이 된다.

또한 古代 中國에서 索引이란 單語가 함께 쓰인 文獻이 있으나 오늘날의 意義와는 전혀 다르다 할수 있다. “漢나라 焦延壽가 지은 「易林」에 “愛我嬰女索引不得”이라 하 있으나 索引(끌어 당기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결코 오늘날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다.”⁽¹³⁾

索引이란 말과 併用되는 ‘引導’이란 用語는 索引의 別稱으로서 英語 index를 읽을 때 나는 音에서 비롯”⁽¹⁴⁾ 되었으므로 비교적 근년에 生成된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때 “中國에서 索引이란 단어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現代의 索引라는 전히 다르게 쓰임을 알 수 있고 索引이 ‘圖書의 内容에 대한 案内 또는 指示’라는 概念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뒤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다”⁽¹⁵⁾

우리나라의 경우 색인이란 用語는 비교적 近年에 사용된 듯 하다. 大正 9년 (1920) 출판된 「朝鮮語辭典」에서는 索引이 項目으로 表出되지 않았으며, ⁽¹⁶⁾ 昭和 3년 (1928) 판 「朝鮮語辭典」에도 역시 收錄되지 않았다.

索引이란 項目이 辭典에 收錄되기는 1936년 發行 文世榮 編 「朝鮮語辭典」이 最初였다.⁽¹⁷⁾

(9) *ibid.*, p. 203

(10) Taylor, Archer. *General Subject Indexes since 1548*.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 1966. p.54.

(11) 辭海 下册, 臺灣, 中華書局, 民國 58年 (1969). p. 未集 63.

(12) 辭海 上册, *op. cit.*, p. 寅集 228.

(13) 鄭恒雄 著, 沈曉俊 譯, 中國索引의 發展過程, 도서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30권 1호 (1975.1) p.53.

(14) 辭海 上册, *op. cit.*, p. 寅集 229.

(15) 鄭恒雄, *op. cit.*, p. 53.

(16) 朝鮮總督府 編, 朝鮮語辭典, 京城, 朝鮮總督府, 大正, 9(1920).

(17) 文世榮 編, 朝鮮語辭典, 京城, 朝鮮語辭典刊行會, 1936.

4 도서관학논집

辭典에 한 낱말이 收錄됨은 이미 그 用語가 그 社會에서 通用되고 있을 경우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1940년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圖書의 内容에 대한 案内'로서의 索引이란 用語가 쓰였음을 意味한다.

이를 立證할 수 있는 資料로서는 1920년판 「朝鮮語辭典」(朝鮮總督府 編)에서 本文의 項目으로는 索引이란 낱말이 收錄되지 않았으나 卷頭에 '諺文索引', '漢字訓索引' 및 '漢字音索引'이 첨부되어 있고 1923년 발행, 李鍾極 編 「모던 朝鮮外來語辭典」에서도 '和解索引' '日本語五十音索引' '가나다索引'이 있는 것으로 보아 明白하다. 그러나 언제부터 쓰여 졌는지는 明確치 않고 다만 1920년 이전엔 索引이란 말 대신에 '檢索' '字劃檢索' '檢字' 등의 用語를 자주 사용하여 檢索를 도왔던 것 같다.

索引이란 用語가 처음 쓰이던 初期에는 오늘날과 같이 「색인」이라고 읽지 않고 주로 「삭인」이라고 발음했던 것 같다.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에서는 「삭인」(索引)이란 項目에서 "(1) 찾아 내는 것, (2) 육면, 사전, 기타 서적에 있는 글자를 빨리 찾아 보도록 만들어 놓은 目錄같은 것, 글자를 찾아보기" ⁽¹⁸⁾로 해설되어 있고 「색인」(索引)의 項目에서는 「삭인」을 보라'는 參照表示가 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940년대 말, 혹은 50년대까지 持續되어 各種 辭典에서 「식인」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였고 「색인」에 대해선 參照表示만 해 주었다. 그러나 1950년 한글학회 발행 「큰사전」에서 처음으로 「색인」에 대해 설명하고 「삭인」에 대해 參照表示만 해 주었는데 ⁽¹⁹⁾ 이후로 소수의 辭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색인」 항목에서 語義를 설명하고 있다.

發音上의 이러한 問題는 당시만 해도 「색인」이 우리말로서 普偏化되어 있지 못해 "索引의 中國式 發音이 索은 '思鄉'으로 引은 '矣忍'으로 나는데서" ⁽²⁰⁾ 연유한듯 하다.

이상의 몇 가지 사실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索引이란 用語가 비교적 近年에 쓰이기 시작했고 意味는 주로 「辭典등에서 本文의 内容을 指示' 해주는 뜻은 意味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初期 索引의 概念은 西洋의 경우 단순히 '집계 손가락' 또는 '指示하다' 등의 뜻으로 쓰였고, 中國의 경우 '求하다', '끌어 당기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어 現代의 意味와는 매우 다르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 索引의 意義와 機能

索引의 概念에 대해 O.E.D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定義하고 있다. ⁽²¹⁾

(18) 文世榮. *op. cit.*, p. 803.

(19) 한글학회편. 「큰사전 3卷」. 서울, 乙酉文化社, 1950. p. 1656.

(20) 辭海 上冊. *op. cit.*, p. 實集 228.

(21) *Oxford English Dictionary*, p. 203.

- a. 책의 앞에 붙은 内容目次로서 그 책이 취급한 事項에 대한 要約 또는 간략한 書目이나 概要, 序文, 序論을 말한다.
- b. 보통 책의 뒤에 위치한 그 책에 收錄된 人名, 主題名등에 대한 알파벳順 리스트로서 그것이 所在한 위치를 指示해 준다.
- c. 參考書目.

O.E.D.의 定義에는 包括的인 索引의 概念을 收容하고 있는데 内容目次나 書目, 序文등을 모두 索引의範疇속에 넣고 있다. 특히 參考書目을 索引의範疇에 넣은 것은 初期의 索引들이 대부분 圖書目錄類索引으로 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意味깊은 定義가 할 수 있다.

한편 Webster에서도 O.E.D.의 b項과 同一한 좁은 意味에서의 定義를 내리고 있으며,(22) 우리나라의 최근 辭典에서도 “책따위의 가운데 있는 글자나 날말, 사항등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차례에 따라 번역 짜놓은 목록”(23)이라 하여 内容索引의 좁은 意味만 定義하고 있는데 이兩者는 모두 정확한 定義라 할 수 없다.

보다 分析的이고 詳細한 定義는 圖書館學關係 專門辭典類에서 찾아 볼 수 있다. A.L.A用語集에서는 아래와 같이 多樣한 定義를 내리고 있다.(24)

- a. 圖書 및 全集에 收錄된 記事 및 人名에 대한 目錄으로서 그들이 所在한 페이지 수를 記錄하여 指示해 준다.
- b. 特別한 記事나 한 主題의 資料에 대한 圖書館의 參考用 카드目錄.
- c. 特殊圖書館에서 自館에 없는 特殊情報源에 대한 目錄.
- d. 參照表示.

이를 分析해 보면 a項은 앞에 論及했던 다른 定義와 同一하나 b,c項은 索引對象資料를 한 文獻의 外의인 情報を 受容하는 書目도 포함한다는 데서 앞의 定義들과는 別異하다.

1964년 英國標準化機構 (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는 「圖書, 定刊物 및 其他 出版物의 索引作成을 위한 勸告」 (Recommendation for the Preparation of Indexes for Books, Periodicals and other Publications)를 作成하고 여기서 아래와 같이 索引에 대한 定義를 내렸다. “索引은 文獻의 内容에 대한 體系的 案内, 또는 集書, 連續刊行物을 포함한 記錄資料에 대한 體系的 案内로서 알파벳順이나 다른 約定된 順序로 排列된 標目 (headings)을 가지고 있으며 索引된 개개의 項目이 所在한 끗을 指

(22)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London, Encyclopedia Britannica Inc. 1966, p.1148

(23) 신기철, 신옥철 공평. 새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서울신문사, 1974. p.1794.

(2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A.L.A. 1956.

6 도서관학논집

示해 주는 參照가 있다”⁽²⁵⁾고 하여 圖書에 대한 索引와 定明刊行物에 대한 索引를 同時에 서술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가지는 機能面에서도 必要로 하는 文獻 또는 主題로 案内하는 機能과 그 文獻이 所在한 곳으로 指示해 주는 機能으로 分化시켜 定義하고 있다.

Encyclopediæ Britannica 에서는 특히 選定된 標目 (headings)에 따른 한 主題의 分割과 각 標目下에서 細目 (Subheadings)을 알파벳順으로 排列하여 情報를 檢索하도록 하는 分類索引 (Classified index)에 대해서 보다 큰 비중을 두고 說明하고 있다.⁽²⁶⁾

이밖에 Harrod 의 用語集에서도 包括的인 意味에서의 定義를 내리고 있으며,⁽²⁷⁾ 日本의 「圖書館學·書誌學辭典」에서도同一한 情 향을 보이고 있다.⁽²⁸⁾

그러면 索引의 本質은 무엇인가? 이를 가장 要約된 形태로 표현한다면 ‘어떤 資料를 媒介로 하여 原文에 接近하게 해 주는 手段’이라 할수 있다. 이 手段을 効果의 으로 이뤄주기 위해 索引에는 한 文獻의 書誌的 事項을 一定한 體系下에 組織化하는 編目法, 主題의 接近을 容易하게 해 주는 分類法, 一定한 順序로 義列하므로서 檢索을 돋는 排列法등의 各 要素가 合成된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提示된 여러 索引에서 索引의 意義를 包括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要素만 가려내어 索引의 種類別 意義를 試圖해 보기로 하자.

索引은 첫째, 한 文獻에 收錄된 内容을 檢索할 수 있도록 項目을 表出하여 一定한 順序로 排列하고 페이지 수 및 기타의 表示로 收錄된 位置를 指示해 주는 것. 이는 주로 圖書등의 單行本索引에 속하며 文獻의 内的 情報를 受容한다.

둘째, 文獻에 收錄된 多數의 個別의 記事を 記事單位로 分析 體系化 함으로서 内容, 執筆者, 論題名 등을 檢索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는 주로 定期刊行物, 全集등의 索引를 포함하여 주로 文獻의 外的 情報를 受容한다.

셋째, 文獻을 일정한 編排方式에 따라 體系化함으로서 所在를 指示해 주거나 원하는 분야의 書誌的 事項을 알게 하여 原文을 일어 읽게 하는 道具이다. 이는 주로 圖書 目錄類索引로서 圖書나 定期刊行物의 外的 情報를 受容한다.

이상 例示된 여러가지 定義를 綜合해 볼때 索引은 두가지의 중요한 機能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指示의 機能이다. 内容索引이나 記事索引의 경우 그 資料가 位置하거나 所

©(25) Harrod, Leonard M. *The Librarians' glossary of terms used in librarianship and the book crafts*. London, Andre Deutsch, 1971. p.324.

© (26) *Encyclopediæ Britannica*. 1970 ed. London, Encyclopedia Britannic, Inc. 1970. Vol.12. p.244k.

(27) Harrod, Leonard M. *op. cit.*, pp.324—325

© (28) 植村長三郎 編著, 圖書館學·書誌學辭典, 東京, 有斐堂, 昭和 47 (1972), p.177.

在된 原文을 指示해 주므로서 原文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준다.

둘째는 選擇의 機能이다. 이는 指示의 機能과 一面 類似性을 가진것 같으나 主題 혹은 主題名標目에 따라 접근하므로서 그 分野의 資料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빠넓게 알게 해 주며 그 資料가 자신이 選擇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基盤을 조성해 준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다르다. 이는 주로 主題索引 또는 分類索引에서 利用되는 資料檢索의 方法이다.

또한 相互參照法을 利用하고 있는 索引의 경우 한 項目에서 다른 關聯된 분야의 資料까지 案내해 주므로서 利用者가 처음에 원했던 資料보다 더 純粹한 資料를 檢索하도록 條件을 助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나 위에서 論及한 主題接近의 경우는 指示의 機能도 가지지만 選擇의 機能을 더 많이 提供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나일된 이어 項目에서 利用者가 스스로 判斷하여 取捨選擇하도록 해 주는 機能이 指示의 機能보다는 분명 優先하며 指示의 機能은 項目이 選擇된 후에 그것이 指示하는 바에 따라 原文에 접근하는 次後의 機能인 것이다.”⁽²⁹⁾

III. 索引의 歷史

1. 西洋索引史

索引의 發展은 東·西양을 막론하고 처음부터 索引自體가 獨立的으로 形成되어 發展해 온 것이 아니라 初期에 目錄과 깊은 關係를 가지면서 社會變遷이나 出版文化의 發達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成長해 왔다.

索引의 重要構成要素를 보면 編目法, 分類法, 排列法 등 여러 要素가 포함되는데 初期의 索引들은 이를 要素를 모두 充足시키지 못하고 部分的으로만 갖추고 있었다. 물론 이런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은 편리한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의 종명이 되지만 당시의 社會條件에 완전한 형태의 索引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데에도 原因이 있다.

Collison은 “資料에 대해서 索引를 해 주는 것은 人間의 강렬한 本能이다”⁽³⁰⁾라고 하여 本能의 慾求로 생각했지만 이것이 本能의 인지 아닌지는 더 研究되어야 할 문제이나 오래전부터 인간이 分類하고, 排列하는 方法을 알고 事物을 처리해 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索引의 本質이 ‘어떤 資料를 媒介로 하여 原文에 접근하게 해주는 手段’이라고 생각할 때 索引의 源流는 目錄에서 찾아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³¹⁾

(29) *Encyclopedia Britannica, op. cit., p.244k.*

(30) Collison, Robert L. *Index and Indexing*, New York, John de Graff Inc. 1959, p.16.

(31) 물론 이러한 推定은 分類나 目錄이 본 索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機能의 인 면에서 본 때

8 도서관학논집

Alexander 圖書館의 歷代 館長중 Callimachus (B.C 305~240?)는 피나케스 (Pinakes) 目錄을 作成하여 使用하므로서 그의 學問的 명성을 크게 떨쳤는데 “Pinakes 目錄은 圖書館의 筆寫本 目錄으로서 全藏書를 詩部와 散文部로 나누고 각部를 다시 10類로 區分하였으며”⁽³²⁾ “各 主題 部門에 있어서는 著者名의 알파벳順으로 排列하고 간단한 傳記와 그들의 著作을 열거하였다… Pinakes 目錄은 오랫동안 標準書目으로서 評價를 받아 왔고 그후 모든 古文獻書誌의 基礎가 되었다”⁽³³⁾

이와같이 “Pinakes 目錄은 古代의 代表의인 目錄으로서 Alexander 圖書館에 藏積所藏되었던 情報資料를 신속하게 檢索할 수 있도록 考察된 것이며 前代의 目錄보다 進一步한 것은 分類된 各 主題下에서 著者名 알파벳順 排列을 試圖했다는 점이다”⁽³⁴⁾

Pinakes 目錄의 排列方法은 오늘날 分類索引에서 同一主題下의 各 著作을 著者名 알파벳順으로 排列하는 方法이 起源의 되며 著者에 대한 傳記와 著作을 열거한 점은 오늘날 解題의 初步的 段階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Greece의 Galen(129~199)은 資料를 分類書誌에 의해서 編成하는 것이 利用에 편리하다고 主張하고 圖書館의 情報處理技術은 이를 中心해야 한다고 強調하는 한편 스스로 分類書誌를 作成했다”⁽³⁵⁾고 전하고 있으나 現傳하지 않아 그 詳細한 것은 알 수 없다.

이후 Rome 時代를 거쳐 中世에 이르기 까지 主題의 分類, 編目, 排列등에 관한 記錄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크다란 進展을 가져왔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中世까지 資料處理方法에 있어서 뚜렷한 進展이 없었다 함은 古代圖書館의 우수함을 認定해 주는 結果가 되기도 한다.

中世初 부터 르네상스初期에 이르는 동안 圖書館은 주로 修道院을 中心으로 하여 發展해 왔으며 資料의 處理方法은 自館所藏資料에 대한 分類目錄을 作成하는 것이 고작 이어서 古代圖書館보다 발전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出版量이 資料整理方法의 更新을 要할만큼 대단한 것이 못되었다는데에 그 主要 理由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時期는 西洋索引史에 있어서 特記할 重要할 意味를 지닌다. 1247년 聖經의 重要한 句節로 案내해 주는 要語索引 (Concordance)이 Hugh of st. cher에 의해 *Concordance of the Bible* 이란 이름으로 간행되어 索引의 機能을 가진 最初의 圖書가 되었다.⁽³⁶⁾ 여기서 오늘날 索引의 機能과 같이 폐이치수 까지 안내해 주는 역할은

類似性이 많으며 당시의 索引가 分類나 目錄의 한 要素를 探尋하였고 後代의 索引發展을 위한 促進劑가 되었다는 뜻이다.

(32) 姓名六郎, 新圖書館概論, 東京, 學藝圖書株式會社, 昭和 48 (1973), p.73.

(33) Hessel, Alfred, History of Libraries, tr. with supplementary material by Reuben Peiss, 李春熙譯, 西洋圖書館史,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p.19.

(34) 即駁謨, 文獻情報學의 歷史의 背景(2), 서울,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1975], p.3.

(35) loc. cit.

(36) Encyclopdia Britannica, op. cit., p.244k.

못했지만 重要語句가 있는 聖經 句節로 案內한 것은 분명 索引으로서의 機能을 가졌다고 해야 할것이다.

英國의 索引學會 事務長이었던 Wheatley는 1878년 그의 著書 *What is an Index?*에서 “圖書의 索引은 16세기 初 비롯되었다”⁽³⁷⁾ 고 주장하고 있고 Taylor도 그의 著書 *General Subject Index since 1548*에서 “索引의 始初를 1548년의 *Pandectae*로 보고”⁽³⁸⁾ 있으나 索引의 機能而에서 본때 Concordance를 媒介로 하여 原文의 聖經句節로 案내한 것이 분명 索引의 始初였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후 “中世末期의 藏書目錄에 알파벳順의 索引를 첨부하여 이용에 도움을 주었다”⁽³⁹⁾ 고 전하고 있으나 具體的인 體制가 전해지지 않아 어느 冊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선 알수 없고 단지 “中世에 現代의 索引의 機能을 가진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要語索引이나 内容目次 등이 索引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었다.”⁽⁴⁰⁾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 (Johannes Gutenberg 1400—1468)에 의한 印刷術의 發明은 크게 성행했던 筆寫本時代의 탁을 내리게 했으며 圖書生產量의 增加現象을 크게 促進시키는 轉機를 이루도록 만들었다. 印刷術의 發明과 더불어 나타난 情報量의 增加現象으로 말미암아 圖書目錄類등의 傳統的인 方法으로는 各種 情報의 選擇과 所在糾明이 어려워 지자 보다 세로운 方法이 要求되어지고 이에 따라 나타난 것이 1545년 獨逸系 스위스學者인 게스너 (Conrad Von Gesner 1516~1565)가 編纂한 「世界書誌」 (*Billiotheca Universalis*)였다.⁽⁴¹⁾

“그가 편찬한 一聯의 著作物중 제 1권은 國際的 人名辭典으로서 著者名을 알파벳順으로 排列하고 각 著者에 대한 간단한 傳記를 收錄하였으며 그 著者の 모든 著作를 解題한 것이었다.”⁽⁴²⁾ 게스너의 計劃에 따르면 “收錄된 資料를 21部門으로 分類하여 각 部門別로 著書를 모아 出刊할 예정이었으나 그중 19部門에 대해 1548년 *Pandectae*라는 書名으로 出版하고 神學을 취급한 21번째의 部門은 1549년 *Partitiones*라는 명칭으로 出版하였다.”⁽⁴³⁾

이러한 一聯의 書誌가 分類索引의 基礎를 굳혔는데 게스너는 “*Pandectae* 序文에서 索引은 불필요한 것이라 믿어왔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여 *Pandectae*에서 自體索引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分類索引은 主題의 알파벳順索引를 必要로 하며 著者的 알파벳順索引도 必要로 한다’는 것을 느껴 3卷인 *Partitiones*의 끝

(37) loc. cit.

(38) Taylor, Archer. op. cit., p.41.

(39) Hessel, Alfred. op. cit., p.42.

(40) *Grolier Encyclopedia*. New York, The Grolier Society Inc. 1954. V.6, p.103.

(41) 鄭駿謨. 文獻情報學의 歷史의 背景 (2). op. cit., p.7.

(42) Taylor, Archer. op. cit., p.40.

(43) ibid. p.41.

에 2卷 *Pandectae* 와 3卷 *Partitiones* 에 대한 알파벳順 索引項目을 덧 붙이게 되었다.”⁽⁴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索引의 源源은 Concordance 에서 찾을수 있으나 전경 한 索引의 出發은 1549년의 *Partitiones*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특히 “Gesner의 索引은 著者, 書名, 主題名등 어느 것으로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오늘날 까지도 그 基本的 方向은 변함이 없는데 이러한 것은 現代索引法의 基礎를 開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⁵⁾

이 당시 “英國에선 Thomas Gybson에 의해서 新約聖書에 대한 要語索引 (*First English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을 發行 (1536)하여 英國에선 처음으로 索引의 길을 개척했으며” “1550년엔 John Marbeck에 의해 *English Concordance of Entire Bible*을 發行”⁽⁴⁶⁾ 하는 등 주고 聖經에 대한 要語索引이 初期索引의 基底를 이루고 있었다.

Gesner에 의해 圖書에 대한 索引이란 새로운 영역이 개척된 뒤 Robert Constantin (? — 1605)이 1555년 Paris에서 *Normanclator Insignium Scriptorum* 이란 書誌를 發行했는데 그는 副題를 *Indexque totius Bibliotheca atque Pandectarum doctissim atque ingeniosissimi viri C. Gesneri* 라고 하여 Gesner의 著作에 대해 索引할 것을 약속했으나 실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⁴⁷⁾

이 書誌는 Gesner의 分類索引方法을 본받고 있지만 Gesner 것보다 더 進步된 점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書名에서 Index란 用語를 사용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서 意味 깊은 것이다.

Francis Witty는 14, 15, 16 세기의 索引研究에서 당시 索引의 性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⁴⁸⁾

첫째, 색인의 배열은 대부분 알파벳順으로 되어 있는데 順序의 嚴密性은 첫 音節을 지나면 무너지고 거의 單語끝까지는 맞지 않는다.

둘째, 대부분은 分析的 題名을 採用했는데 이는 内容을 要約한抄錄의 形態였다. 가끔 略語에 의한 題名을 記入하기도 하나 대부분 内容에서 採擇된 건 것이었다.

셋째, 대다수가 主題索引의 方式을 採用하여 主題標目을 사용했다. 즉 内容 또는 記事를 要約한 採擇語가 아닌 檢索을 편리하게 하는 主題標目이었다.

(44) Taylor, Archer, *op. cit.*, pp.51—52.

(45) 鄭馳誠, 文獻情報學의 歷史의 背景 (2), *op. cit.*, p.8.

(46) *Encyclopedie Britannica*, *op. cit.*, p.244L.

(47) Taylor, Archer, *op. cit.*, pp.54—55.

(48) Witty, Francis J. Early Indexing Techniques; a study of several book indexes of the fourteenth, fifteenth, and early sixteenth centuries. *Library Quarterly*, Vol.35, No.3 (Jul. 1965) pp.141—148.

17세기의 索引事業가운데 重要한 한가지 특징은 文集 또는 定期刊行物에 대한 索引의 嘴矢라 할 수 있다.

“定期刊行物은 16세기의 팜프렛으로 出發하여 關聯된 問題를 취급하는 散發的인 形態에서 써리즈로 전행되고 또한 1년 또는 2년마다 發行되는 뉴스의 등기부와 같은 것으로 되었으며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規則的인 定期刊行物이 되었다”.⁽⁴⁹⁾

“現代的인 意味에서의 定期刊行物의 始初를 1665년 프랑스에서 發行된 *Journal des Scavans* 라고 본다면”⁽⁵⁰⁾ 그로부터 “26년 뒤 처음으로 定期刊行物索引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1683년 암스텔담에서 發行된 Cornelius a Beughem의 *La France Scavante*이다. 이는 1665년 创刊된 *Journal des Scavans*에 收錄된 약 2000件의 學究의이고 科學의in 記事 및 圖書에 대해 索引했다고 序文에서 叙述하고 있다.”⁽⁵¹⁾

“이는 실로 最初의 定期刊行物 索引이었으며 오래 뒤 Poole의 索引가 나타날 때까지 2세기 동안 이 索引를 능가할 索引가 없을 만큼 完全했다”⁽⁵²⁾고 한다.

“Beughem은 여기서 며칠지 않고 여러나라에서 出版된 저어널을 포함시키도록 확대시킨 爭取적인 著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결과 약 7천권의 著作을 著者名 알파벳順으로 排列한 國際規模의 定期刊行物索引인 *Apparatus ad historiam novissimam*을 出刊하는 成功을 보았다”⁽⁵³⁾

17세기에 索引의 黃金期라고 이를 만큼 많은 種類의 索引가 出版되었으나 18세기에는 오히려 前代에 비해 뚜렷한 減少나지 退步現象을 보였으며 少數의 索引에 의해 그命脈이 유지된 정도였다.

1776년 出版된 *Repertorium reale*은 18세기의 索引를 代表한다고 할 수 있는데 “1 卷 및 2 卷의 著者 目錄에서 62,000 項目을 열거하고 3만 5천권 이상의 圖書를 收錄했으며 定期刊行物 記事와 論文 등도 많이 收錄했다. 3卷에서는 圖書 및 定期刊行物을 主題別로 排列하였다.”⁽⁵⁴⁾

따라서 *Repertorium reale*의 檢索方法은 著者名과 主題名의 어느 方法으로도 檢索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出版關係事情으로 보아 書名으로 檢索하도록 하는 것은 어리석은 試圖였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시의 書名은 內容의 抄錄形式 또는 內容을 壓縮시킨 매우 긴 書名이었기 때문이다.⁽⁵⁵⁾ 그러므로 西洋에선

(49) 國會圖書館編, 主要各國의 出版文化와 圖書館, 서울, 國會圖書館, 1971, p.89 (圖書館參考資料 344).

(50) loc. cit.

(51) Taylor, Archer. op. cit., pp.179—180.

(52) loc. cit.

(53) Taylor, Archer. op. cit., p.181.

(54) ibid. p.205.

(55) 이러한 傳統은 오늘날도 많이 보이는데 書名 다음에 說明文의 形式을 취해 內容에 대한 要約을 해 주고 있음이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12 도서관학 논집

일찍부터 書名基本記入이 아닌 著者名 基本記入을 發展시켜 온듯 하다. 그리고 *Repertorium reale*에 이르러 現代索引에서 사용하는 辭典體 排列方法이 오늘날과 形式은 다르나 처음으로 試圖된듯 하다.

한편 18세기에는 英國에서 다수의 索引이 나타나 發展을 촉진시켰는데 그중 중요한 것의 書目을 적어보면⁽⁵⁶⁾

- 1) *A Complete Concordance to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by Alexander Cruden, London, 1737
- 2) *General Index to the Spectators Tatlers and Guardians*, Comp. by Richard Steele, 1757
- 3) *A General Index to the Philosophical Transactions (Royal Society) for the first 70 volumes*, Comp. by P. H. Maty 1787 등이다.

定期刊行物索引은 17세기 Beuhem에 의해 처음 創案된 아래로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8세기 말에 *Allgemeines Schregister*가 出版된 때를 前後하여 다시 관심이 增大하기 시작하여 19세기 이후에야 高潮과 그 効用성이 認定되었다.

그뒤 “1849년 W.F. Poole의 *An alphabetical index to subjects, treated in the reviews and other periodicals*…에 이르러 現代索引으로 轉換하는 하나의 頂點을 이루게 되었으며⁽⁵⁷⁾ 이때부터 文獻의 外的情報를 受容하는 圖書目錄類索引와 定期刊行物索引가 뛰어난 形式의 索引가 나왔다는 意義를 보이고 있다.

Poole의 *An alphabetical index*는 索引項目數에서는 종전의 것과 비교가 않되게 많았지만 英語로 出版된 資料만 收錄했다. 그리고 1853년에 2版을 出刊했는데 初版보다 4倍의 項目을 收錄했으며 1882년의 3版에서는 또다시 3倍로 增加된 175,000項目을 收錄했다⁽⁵⁸⁾. Poole의 索引은 1907년 까지 3번의 补遺版을 내는 成功을 보았는데 이 러한 成功에 힘입어 북유럽 諸國 즉 프랑스, 英國, 홀랜드,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등에서 비슷한 形式의 索引가 나왔다는 記錄이 보인다.⁽⁵⁹⁾

여기서 한가지 特記할 事實은 Poole 이전의 定期刊行物索引들이 그範圍가 國際的 인데 비해 Poole의 索引는 單一國語만 다루었다는 점이다. 즉 19세기 중엽에 이미 全世界를 커버하는 索引의 作成이 불가능 한 만큼 情報量이 增加되었다는 점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主題接近方法에 있어서 細分된 標目語를 採擇하는 점과 相互參照를 強調한 점이라 할 수 있다.”⁽⁶⁰⁾

(56) *Encyclopaedia Britannica*, op. cit., p.244 M.

(57) Metcalfe, John. *Subject Classifying and Indexing of Libraries and Literature*. Sydney, Argus and Robertson, 1959. pp.88-89.

(58) Taylor, Archer. op. cit., p.242.

(59) *Grolier Encyclopedia*, op. cit., p.104.

(60) *Encyclopaedia Britannica*, op. cit., p.244N.

한편 圖書目錄類(索引의) 경우 “19세기 초반의 代表的인 主題索引이며 後代의 索引과 索引法에 그다간 영향을 미친 1824년 Edinburgh에서 出版된 Watt의 *Bibliotheca Britannica* 를 들 수 있다”⁽⁶¹⁾ 이는 “副書名을 *A general index to British and foreign literature* 라 하였으며 英國 및 外國著者의 選定圖書 약4만권에 대해 書誌的情報를 제공하고 있으며, 藝術 및 科學에 관한 定期刊行物의記事를 매우 상세히 실고 있다.” “*Bibliotheca Britannica*의 編排方法은 전체를 1卷, 2卷으로 나누고 1卷에는 著者名 알파벳順排列을 하였으며 2卷에서는 主題名을 알파벳順으로 배열하여 檢索를 수월하도록 도았다”⁽⁶²⁾

그러나 Watt의 索引에서도 書名에 의한 檢索方法을 전혀 考慮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때까지도 書名이 單純型이 아닌 內容의 壓縮型이어서 索引할 必要性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무렵 英國에서는 세익스피어에 관한 研究가 매우 활발하여 그에 대한 文獻이 數種 發行되었는데 1805년 Francis Twiss가 편한 *A complete verval index to the plays of Shakespeare* 와 1874년 Alexander Schmidt에 의해 편찬된 *Shakespeare-Lexicon*이 그 代表的인 것들이다.⁽⁶³⁾

이들은 종래 指向에 오던 包括的範圍에서 벗어난 독특한 個人書誌였다는 점에서 歷史적으로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

19세기에는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索引들이 出版되었는데 少數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分類索引의 方法을 따르고 있고 그範圍가 國際的이며 書名에 의한 檢索方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特色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特色들은 18세기 말에 出版된 *Repertorium reale*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까이는 *Bibliotheca Britannica*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19세기 후반에는 索引에 대한 研究가 本格的으로 이루어졌다는데에도 중요한 意義를 찾을 수 있다.

“1878년 英國에서 Henry B. Wheatley를 事務長으로 하는 索引學會가 創立되고同年 첫 刊行物로서 Wheatley가 *What is an Index?*라는 著書를 刊行하여 初期索引史를 叙述했으며 많은 索引誌들을 발굴하여 열거했다”⁽⁶⁴⁾ 몇년 뒤에 Wheatley는 *How to make an Index*(1902)라는 著書를 또 發刊하여 西洋索引史에 重要한 業績을 남겼다.⁽⁶⁵⁾

“1891년에는 C. A. Cutter에 의하여 *Cutter's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가 出

(61) Taylor, Archer. *op. cit.*, pp.230—231.

(62) Metcalfe, John. *op. cit.*, p.31.

(63) *Encyclopedie Britannica*, *op. cit.*, p.244 M.

(64) *loc. cit.*

(65) *Grolier Encyclopedia*, *op. cit.*, p.104.

19 도서관학논집

版되어 索引의 編排方式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⁶⁶⁾ 즉, 과거에는 主題索引, 著者索引, 書名索引 등이 서로 獨立하여 機能을 발휘하므로서 利用에 不便하였으나 雜典體 排列法이 確立됨에 따라 이 모든 要素가 모두 統合排列되므로서 檢索이 매우 편하게 되었다.

20세기 이후의 西洋索引史에 관해선 現段階에 선 體系的인 研究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은 전적으로 의 분야의 出版物이 너무 많다는 데에 基因한다.

“情報폭발에 對備한 방법을 다른 文獻들이 오히려 폭발하는 情報이상의 속도로 增加一路에 있으며”⁽⁶⁷⁾ “2000년 경에 이르면 대량의 文獻이 文獻自體의 수습방법을 다른 文獻들로 구성되게 될 것”⁽⁶⁸⁾이라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2차자료의 混雜 현상이 加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의 西洋索引을 특징지울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要素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索引의 性格이 크게 轉換되었다는 점이다. 科學技術文明의 發達과 學問의 細分化現象이 자꾸만 깊어짐에 따라 情報量이 크게 增加하여 모든 情報를 다 收錄한다는 索引編成立場에서 점차 ‘制限된 情報’를 收錄한다는 方向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따라서 20세기 전반은 綜合索引으로 부터 主題索引으로 넘어오는 過渡期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당시에 出版된 索引의 編成에 있어서 기본적인 制限性을 보면 끝 짐작이 가는 일로서 必然的인 發展過程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시대부터는 주로 定期刊行物索引이 索引出版의主流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떠는 시기이기도 하다. 19세기 중엽 Poole의 索引에서 基礎가 확립된 定期刊行物索引이 20세기 들어와서 本格의 으로 發展해 나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둘째는 西洋索引의 發展이 주로 美國을 중심으로 形成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만큼 美國은 索引의 量과 質에 있어서 他國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풍부했으며 특히 Wilson 出版社의 업적은 괄목할 만하다. Wilson 社는 1902년 처음으로 매우 유용한 相互參照法을 이용한 主題接近方式의 *Reader's Guide to Periodical Literature*를 出版한 뒤 계속해서 이를 母體로 하여 各種 索引誌를 出版하므로서 索引의 發展에 크게 공헌했는데 그 주요한 索引만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⁶⁹⁾

1) *Reader's Guide to Periodical Literature* 1905~

2) *Applied Science & Technology Index* 1913~

(66) Metcalfe, John. *op. cit.* p.154.

(67) Katz, William A.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Vol. II. Reference Services.* New York, McGraw-Hill, 1959. p.9.

(68) *loc. cit.*

(69) Lawler, J. *The H.W.Wilson Company: half a century of bibliographic publishing.* Minnesota Press. 1950.

- 3) *Art Index* 1933~
- 4) *Bibliographic Index* 1938~
- 5) *Biography Index* 1947~
- 6) *Biological and Agricultural Index* 1964~
- 7) *Book Review Digest* 1905~
- 8) *Business Periodical Index* 1958~
- 9) *Cumulative Book Index* 1933~
- 10) *Education Index* 1932~
- 11) *Essay and General Literature Index* 1934~
- 12) *Index to Legal Periodicals* 1909~
- 13) *Library Literature* 1934~
- 14) *Play Index* 1953, 1963, 2 Vol.
- 15) *Short Story Index* 1953~
- 16) *Social Science Index* 1974~
- 17) *Humanities Index* 1974~
- 18) *Vertical File Index* 1935

또한 美國 政府에서도 科學과 技術分野의 專門研究團體들을 支援하기 위해 중요한 많은 索引들을 發刊했는데 주요한 단체와 색인사업은 아래와 같다.

- 1) Library of Congress : 暨은 特殊索引 특히 규모면에서 방대한 索引事業을 이루었다.
- 2)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專門學會의 索引事業支援
- 3)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Bibliography of Agriculture
- 4)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Index Medicine
- 5) Atomic Energy Commission: Nuclear Science Abstracts.

한편 20세기 初에는 英國에서도 중요한 國가적 색인이 나타났다. “1915년 British Library Association 에서 간행한 *The Subject Index to Periodicals*는 著者, 書名, 主題名을 하나의 순서로 배열한 辭典體 排列을 擇取고 相互參照法을 폭넓게 운용하면서 관련된 主題를 연결시켰다”⁽⁷⁰⁾ 또한 “당시의 索引들이 記入事項을 성략하고 相互參照法을 사용한데 비해 *Subject Index*…는 相互參照法의 使用과 同時に 完全한 書誌的 事項을 다 적어 주었다는 점이 특색이었다.”⁽⁷¹⁾

그러나 學問의 細分化現象과 出版量의 增加로 말미암아 英國圖書館協會는 Wilson

(70) Metcalfe, John. *op. cit.*, p.89.

(71) *loc.cit.*

16 도서관학논집

社가 主題索引化 해 나가는것과 마찬가지로 *The Subject Index*…를 최근 *British-Technology Index*와 *British Humanities Index*로 細分하였다.

셋째는 新聞索引의 嘴矢이다.

1906년 London에서 *The Times Index*가 出刊된 이래 1913년에 *The New York Times Index*가 월간으로 간행되어 現行情報에 대해 폭넓은 情報를 提供해 주고 있다.

2. 中國索引史

東洋의 索引史에 관한 研究는 주로 두가지의 축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 하나는 古代로 부터 내려온 目錄에서 起源, 變型發展되어 온 傳統的인 索引이며 다른 하나는 近代 西洋에서 들어 온 索引法을 적용시켜 만든 現代索引이다.

前者의 경우라면 古代부터 中國을 中心하여 發展되어 왔기 때문에 매우 오랜 역사 를 지니나 後者의 경우는 近代的인 西洋의 圖書館思想이나 索引法이 도입된 후에 發展되었기 때문에 불과 5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닌 뿐이다.

따라서 後者の 경우는 中國이나 우리나라에서 거의 비슷한 發展過程을 가지고 있으나 前者の 경우는 古代부터 高度의 書籍文化가 發生, 維持되었던 中國에서 거의 獨自의 으로 發生되어 왔기 때문에 東洋의 索引史는 곧 中國의 索引史와 直結된다고 할 수 있다.

中國에서의 索引의 歷史는 古代 殷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源流을 되듬어 보는 것의 좋을 것이다. 당시에 이미 索引의 編排方式을 짚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近年 安陽 木屯의 殷虛甲骨文字가 發見된 이후 殷代에도 典籍이 상당히 많았음이 증명되었으며 최근 中央研究院이 발굴한 36坑은 年代가 밝혀진 甲骨卜辭가 1年것이 完全히 순서대로 모여 있는데 이는 조금도 殘缺이 없었으니 당시에 典籍을 整理하는 方法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證明이 된다”⁽⁷²⁾

또한 당시에 이미 原始의 但一定한 編排方法이 存在했다는 것을 證明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龜甲에 글을 써서 冊을 만들고 每冊을 六甲으로 하였으며 月 日의 順序에 따라 排列되어 檢索를 편케 했다”⁽⁷³⁾ 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殷代의 卜辭는 단순히 原始의 資料整理의 方法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索引으로서의 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漢書藝文志」에 보면 “張良과 韓信이 兵法에 順序를 세우고 楊僕이 遺逸本을 모아 兵錄을 記錄하여 整理하였다.”⁽⁷⁴⁾고 했다. “이 「兵錄」이란 말은 곧 兵書目錄을 하였다

(72) 鄭恒雄 著. 沈鴻後譯. 中國索引의 發展過程. 도서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30권 1호 (1975.1) p.53.

(73) loc. cit.

(74) 班固撰. 漢書藝文志 序 “張良韓信序次兵法 楊僕招摭 遺逸紀秦兵錄”.

는 말이니 「漢書藝文志」가 거짓이 없다면 目錄學의 起源은 專科目錄에서 비롯되고 最初의 專科目錄은 陽僕의 「兵錄」이 된다.”⁽⁷⁵⁾

여기서 중요한 것은 專科目錄이란 用語의 概念이다.

“專科目錄이란 單一主題에 관한 圖書, 論文등을 收錄하여 一定한 順序로 排列해 놓은 것”⁽⁷⁶⁾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主題目錄과 同一概念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中國에선 漢初에 이미 오늘날과 같은 主題目錄과 유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 論證되지만 「兵錄」은 일찍이 亡失되어 그 體制가 어떠한지 전혀 考證할 수 없기 때문에 劉向, 欽父子의 「別錄」과 「七略」에서 目錄의 始初로 삼는 이도 있다”⁽⁷⁷⁾

“漢成帝時 劉向이 이미 모아진 典籍들에 대해 校讎作業을 벌여 「別錄」을 만들었는데”⁽⁷⁸⁾ 그때까지 分類의 段階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그의 아들 欽에 이르러 「七略」을 편찬하고자 分類와 目錄의 嘴矢를 이루게 되었다.⁽⁷⁹⁾

“「七略」은 宮中藏書目錄으로서 七分法을 썼으며 略 아래는 種으로 나누고 種 아래는 家로 나누어서 총 33090권을 收錄하고 있다”⁽⁸⁰⁾ 이는 現存하는 中國 최고의 目錄으로서 여기서 이미 現代索引에서 採用하고 있는 分類索引의 方法이 찍혔다고 할 수 있다. 즉 學問을 七類로 類別하고 그 아래는 種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또 家로 細分시켜 主題에 의해 必要로 하는 分野의 資料를 檢索하도록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中國의 分類와 目錄은 어떤 하나의 體系를 세워가면서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班固의 「漢書藝文志」에 이르러 크다만 진전을 하게 된다.

「漢書藝文志」의 分類體制는 「七略」에서 總序에 속하는 韻部를 떼어버린 六分法을 쓰고 있으며 총 13269권을 收錄하고 있는데”⁽⁸¹⁾ “이의 特징은 分類의 基準을 그 冊의 主旨에 두고 있으며 分出과相互參照가 있다는 점이다.”⁽⁸²⁾ 「漢書藝文志」에서 사용한相互參照는 現代索引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cross reference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서 이후의 中國索引에서相互參照를 사용하게 하는 起源이 된다.

「七略」과 「漢書藝文志」의 뒤를 이어 七分法을 採用한 索引으로서 「七志」, 「七錄」, 「七林」등이 나왔으나 이중에서 梁의 阮孝緒가 編한 「七錄」이 특히 後代의 分類索引에 큰 영향을 끼쳤다.

阮孝緒는 主題를 七類로 나누고 각類下에 매우 細分된 小主題를 부여하여 圖書를

(75) 許世瑛, 中國目錄學史, 臺北, 中華出版事業委員會, 民國 43 (1954), p.5.

(76) *ibid.*, p.196.

(77) *ibid.*, p.5.

(78) 梁, 阮孝緒의 七錄序, “昔劉向校讎爲書論其旨意……皆載本書, 時又別集衆錄謂之別錄”

(79) 班固 傳, 漢書藝文志序, “會圖卒 哀帝服 使向卒 侍中 幸車都尉 欽卒父業 欽於是總群書 而奏其七略 故有‘略’”이라 하여 圖書가 내용에 따라 類別되어 中國目錄學上 分類綱目的 嘴矢를 이루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80) 許世瑛, *op. cit.*, p.5.

(81) 李炳漢, 漢書藝文志의 成立과 分類體制, 도학월보,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7卷 7號 (1968.9) p.5.

(82) 倪資坤, 圖書館編目學, 中國圖書, 出版事項未詳.

排列하므로서 主題에 의한 檢索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七略」에서 試圖된 分類索引이 점차 토대를 굳혀가는 過程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七錄」에서도 分類索index나 主題索index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한 著者名, 書名索index 빠져있는데 이는 당시만 하여도 그럴 必要性을 느끼지 못했거나 그렇게 함으로서 얼마만큼 檢索이 편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이후 唐代에 이르러 四分法의 分類를 취한 「隋書經籍志」로 이어지는데 「隋志」의 著錄(記入)方法을 보면 小序는 있고 解題는 없으며 書名을 編目的 유품으로 삼았으므로 後代의 中國目錄에 書名을 먼저 적고 著者名을 다음에 적게 하는 定例가 되게 했다.⁽⁸³⁾

이처럼 中國目錄學者들은 目錄에 대해 일찍부터 힘을 기울여 資料의 整理와 檢索에 크게 활용하려 했지만 現代索index의 基本의 두가지의 機能 중 選擇의 機能은 充足시켰으나 指示의 機能은 아직까지 發見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分類方法이 他國에 비해 월등히 발달하였고 이를 圖書目錄에 적용시키면서 원하는 主題로 接近하여 關聯資料들을 檢索하는 分類索index는 일찍부터 발달되어 왔음이 確實하다.

“中國의 目錄學者들은 1700여년전에 이미 가장 진보적인 일종의 主題目錄을創造해 냈는데 이것이 곧 類書이다. 魏나라 文帝時에 「皇覽」이 있었고 南北朝時代에 「華林溫略」과 「修文御覽」이 있었다. 唐代에는 「藝文類聚」가 있고 宋代에는 「太平御覽」이 있었고 明代에는 규모가 방대한 「永樂大典」이 있었으며 清代에는 「圖書集成」이 있으니 이것이 곧 中國最大의 類書이다.”⁽⁸⁴⁾

“韻書는 韵에 따라 編輯排列되었으며 韵에 의한 檢字는 이미 現代索index의 意味와 相似한 뜻이 있어 讀者들은 韵에 따라 檢索하게 되면 어느 韵으로 부터 資料를 檢索하면 열을 수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므로 오늘날의 索index처럼 쉽게 檢索하는 方法을 역시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明代의 藏書家 祁承燾은 그의 藏書에 대하여 ‘因’ ‘益’ ‘通’ ‘互’ 등 네가지 방법을 채용해서 分類編目을 했다. 그중 ‘通’ ‘互’ 二法은 章學識이 제시한 「別裁」와 「互著」로서 오늘날의相互參照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⁸⁵⁾ 이는 班固의 「漢書藝文志」에서 이미 제시되었던相互參照가基礎를 굳혀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傳記資料에 대해서는 明代에 이미 人名索index의 開端이 있었다. 明의 傅山이자 은 「西漢書姓名韻」과 「東漢書姓名韻」 및 金寅이 지은 「古今同姓名錄」 등은 이어 現代

(83) *ibid.*, p.18.

(84) 鄭恒雄. *op. cit.*, p.54.

(85) *loc. cit.*.

人名索引의 形態가 갖추어져 있었다.”⁽⁸⁶⁾

당시 南宋의 鄭樵는 종래의 四分法을 버린 十二分法을 採用한 「校讎略」을 지었는데 그는 여기서 分類의 必要性을 강조한 한편 흩어진 典籍을 모아 合理的으로 書目을 作成해 놓음으로서 典籍이 散逸되는 것을 막고 文獻에 대해 효과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力說했는데”⁽⁸⁷⁾ 이는 곧 索引의 必要性을 잘 說明해 준것과 같다.

滿의 乾隆 44년 章學誠이 지은 「校讎通義」는 目錄學에 대한 理論을 論述하고 있는 한편 中國의 索引發展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校讎通義」‘互著’ 第 3에는 “大體로 分類와 次序를 類別하여 大道를 밝히고 九流百家의 學問을 叙述하며 조금도 缺逸이 없게 한으로서 사람들이 類를 가지고 冊을 구하게 되고 이 책으로 말미암아 學問을 研究하게 되며 이러한 理致에 도달하려면 互와 通方法이 있어야 한다. 書에는 이 두 가지 互와 通의 方法을 쓰게되면 未嘗不 두곳에 실려 처음것과 중복될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甲乙部次 아래에 다만 注를 붙여서 檢索를 편게 하는 것이니 古인이 가장 重히 여기는 家學도 一家의 書를 叙列하여 一家의 學問을 涉獵할수 있고 根源과 枝葉을 究理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 있으니 窮極에 있어서 그 流別은 이론과 著作의 基準이오 翳書의 折衷이 完成되게 되는 것이다. 重復을 피하여 두곳에 실리지 않는 경우 한 冊이 互通으로 兩用될 수 있는 것을 本書에 단一錄하면 不完全한 것이다.”⁽⁸⁸⁾ 하여 學問의 類別에 대한 必要性과 相互參照에 대한 章學誠의 타월한 經論을 펴고 있다.

그의 持論중 ‘部類와 次序를 類別하여… 類를 가지고 冊을 求하게 되고…’라 한점은 現代의 分類索引에서 主題로서 接近하는 方法을 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圖書를 混沌하기 쉬운 것은 重復互注의 法’을 쓰지 않고서는 後學의 犆悟를 면치 못할 것이며 圖書를 서로 參考에 資하는 것은 重復互注의 法이 아니고서는 古人の 思想의 根源과 그 枝葉에 이르기 까지를 究明해 릴 수 없는 것이다”⁽⁸⁹⁾라 하였다.

章學誠이 말한 ‘互와 通’은 오늘날의 see reference를 말하며 ‘重復互注의 法’은 오늘날 索引에서의 see also reference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당시에 이미 理論上으로는 相互參照法이 完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校讎條理’ 第 7에서 索引에 대한 그의 所論을 明確히 하고 있다. “典籍이 浩繁하고 開見이 限定되어 있으므로 學識이 넓고 性品이 雅談한 者라도 남김없이 이를 究明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그 下級者야 인터 무엇하랴! …校書할 때에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그 制韻을 求하고 韵에 따라서 그 책의 相互錯綜을 檢索함

(86) *ibid.*, p.55.

(87) 許世瑛, *op. cit.*, p.178—179.

(88) 鄭恒雄, *op. cit.*, p.55.

(89) *loc. cit.*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당하다. 이것은 깊고 博識한 儒生들이 畢生의 努力으로 探究되지 못하였던 것이나 지금은 중간쯤 가는 人物이라도 가능한 것이니 校讐의 良法이 아니라!"⁽⁹⁰⁾

이一段의 持論은 增大되는 情報量에 따라 索引의 必要性이 크게 대두된다는 事實을 明確히 提示했다.

그러나 章學誠의 相互參照法이나 索引의 必要性에 대한 一聯의 持論은 예석하게도 당시의 學者들이 重視하지 않아 보잘것 없는 文章으로 여겼다. 이러한 事實은 당시 文獻의 量이 많지 않아 自力으로 원하는 主題의 文獻에 接하기가 비교적 容易하여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索引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立證해 준다.

그러나 清代에도 人名索引과 地名索引은 적지 않게 編纂되었다. 예를 들면 “江龍莊(輝祖)이 지은 「史姓韻編」 64卷과 「九史同姓略」 72卷, 그리고 그 增補 1卷과 道光年間의 馮律이 엮은 「歷代畫家姓名便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史姓韻編」은 「二十四史人名索引」으로 發展되었다. 地名索引은 李兆洛의 「歷代輿地韻編」과 「歷代地理志韻編今釋」과 「皇朝輿地韻編」 등이 있다.”⁽⁹¹⁾

清代의 아편전쟁 이후로 西洋學術이 점차 中國에 移入됨에 따라 中國學術界에도 적잖은 變動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새로운 學問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 新種의 著作이 날로 增加함에 따라自身的 研究主題分野에 대한 폭넓은 資源의 探知나 確保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時代의 狀況에 따라 여러 가지의 圖書目錄類索引가 나타났다. 이 중 가장 代表의인 것으로서 光緒 30년에 나온 「古越藏書樓書目」을 들 수 있다. “이의 體制는 전체를 學部와 政部로 二大別하고 學部 아래 13部門으로 나누고 政部는 24部門으로 나누어서 각類下에 關聯된 著作을 收錄”⁽⁹²⁾ 하고 있는 일종의 分類索引이었다.

뒤를 이어 “民國初期에 各種 圖書目錄類索引가 계속 發行되어 나오기 시작했으며五四운동이후의 中國社會變動에 따라 圖書館界에도 革新的인 운동이 일기 시작하여 大衆化되고 各地에서 圖書館이 設立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⁹³⁾

“1921년에는 文華大學에 圖書館學科가 創設되었고 民國 19년(1930)에는 武昌文化圖書館專門學校가 設立됨을 前後하여 西洋의 索引法이 처음으로 수입되었다. 따라서 西洋의 索引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研究도 활발해 지게 되어 民國 19년(1930) 4月 商務印書館에서 錢亞新著 「索引法」이 出刊되기 까지 하였다.”⁽⁹⁴⁾

또한 “同年 上海의 人文編譯所에서 出版된 「人文月刊」은 中國의 各雜誌를 索引한 定

(90) *ibid.*, p. 56.

(91) *loc. cit.*

(92) 倪寶坤. *op. cit.*, pp. 29—30.

(93) *loc. cit.*

(94) 鄭恒雄. *op. cit.*, p. 56.

期刊行物索引의 嘴矢이다. 이는 每年 10期로 出版되었는데 每期에 最近 雜誌의 要目을 索引하여 250여 종의 刊行物을 收錄하고 있으며 編輯과 排列方法의 構想은 모두 美國 Wilson 社의 *Reader's Guide to Periodical Literature*⁽⁹⁵⁾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⁹⁶⁾

한편 “同年 가을 燕京大學와 Harvard 大學은 共同으로 文化研究所를 組織하고 그 곳에 引得編纂所(索引編纂所)를 두고 索引事業을 벌렸는데 이는 中國索引의 發達史上 大書特記할만한 일이었다. 文化研究社는 洪煥蓮先生의 主導下에 一貫의인 索引을 만들어 왔는데 民國 20年 부터 民國 39년 까지 出版된 索引은 1號부터 41號까지 이고 「引得特刊」도 1號부터 22號까지이며 모두 63種이다. 그중 引得書 1冊은 洪煥蓮先生이 「引得叢刊」을 主編한 經驗을 叙述한 것으로 古書의 索引方法에 대해 아주 자세히 論及하였다 나머지 62種은 모두 索引이며 60種의 書籍(圖書)索引가 2種의 期刊索引를 포함하고 있다.”⁽⁹⁶⁾

이상의 索引事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0년은 中國索引史에 있어서 중요한 時點이 된다. 즉 西洋索引法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하나의 轉換을 이루게 되었으며, 定期刊行物索引이 처음으로 나타나 今後의 發展을 促進시키는 母體가 되게 했다.

한편 民國初期에 各種 專科目錄의 形式을 취한 主題索引들이 多數 刊行되어 學問研究者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었는데 그중 중요한 것만을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⁹⁷⁾

- 1) 紹典目錄 : 「明宋陸桔授經圖二十卷」, 「蔣復聰易經集目」, 「四書集目」, 「論語集目」
「孟子集目」
- 2) 小學目錄 : 「清謝啟昆小學考五十卷」, 「李克弘說文書目輯略」
- 3) 歷史目錄 : 「佚各二十一史總目」, 「清陳寶森史略校補三卷」
- 4) 地理目錄 : 「清顧祖禹古今方輿書目一卷」, 「清楊守敬觀海堂地理書目」
- 5) 金石目錄 : 「清石宋韓金石書目」, 「清蔡銘金石書目」
- 6) 傳記目錄 : 「清張樹氏書總目」

1933년 中山文化教育館은 「期刊索引」을 單獨刊行物로 出版했으며 中法漢學研究所는 豐崇岐의 主導下에 「中法漢學研究所通檢叢刊」을 發刊하여 中國近代索引의 初期를 先導하였다.

1949년 政府가 臺灣에 遷都하자 萬事를 제쳐 놓고 革命實踐研究院에서 우선 索引의 設立작업에 주의를 기울여 「中文雜誌論文索引」(위에 國防研究院中文雜誌論文索引으로 改名), 「日報論文索引」(위에 國防研究院中文日報論文索引으로 改名)을 계속 간행하

(95) loc.cit.

(96) 鄭恒雄. op. cit., pp.56—57.

(97) 許世瑛. op. cit., pp.196—211.

였고 1952년에 「匪報重要內容目錄」을 出刊하였으며 1954년에 章羣先生이 中央研究院의 藏書에 대해 「民國學術論文索引」을 編成하였는데 당시 상당한 利用價值를 가지고 있었다.”⁽⁹⁸⁾

1960년대에 들어와 中國索引은 綜合索引으로 부터 主題索引으로 轉換하는 뚜렷한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初 西洋에서의 變化過程과 1960년대 韓國의 索引이 主題索引으로 變化해 온 過程과同一한 것으로서 索引의 發展樣相이 時間的으로는 差가 있으나 地域의으로는 大差없음을 表現해 주고 있다.

1960년대에 出版된 索引은 대다수가 主題索引이었는데 그중 索引의 發展에 공헌한 중요한 것만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⁹⁹⁾

- 1) 師範大學圖書館 編. 「近五年教育論文索引」 1963
- 2) 余秉權 編. 「中國史學論文索引」, 1902—1962
- 3) 美國亞州學會 中文研究資料센타 編. 「財政論文分類索引」「貨幣金融論文分類索引」「經濟論文分類索引」 1967
- 4) 國家科學會, 科學資料 및 機具센타 編. 「中文報章雜誌 科技論文索引」 1968
- 5) 國立政治大學 社會科學資料센타 編. 「中文期刊人文暨社會科學論文分類索引」 1969
- 6) 王征, 杜瑞青 共編. 圖書館論著資料總目錄, 東海大學「圖書館學報刊」 1969

1970년 이후에 出版된 索引은 그 수가 방대하여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1970년에 國立中央圖書館에서 出版한 「中華民國 期刊論文索引月刊」과 「中國近二十年文史哲論文分類索引」 및 國家科學會 科學資料 및 機具센타에서 編印한 「中文報章雜誌科技論文索引」 2輯은 특히 유명하다.

그리고 당시 “郭榮趙教授가 編한 「新聞紀要 및 新聞索引」 1輯은 美國의 *Facts on File* 과 흡사하여 參考道具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¹⁰⁰⁾

3. 韓國索引

우리나라는 出版文化가 最高로 번성하였던 中國과 隣接하였다는 地理的 條件과 古來로 學問을 중상하는 民族性때문에 中國에 뜻지 않는 書籍文化를 풋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高麗時代에 漢字의 大藏經版으로서는 가장 完備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高麗大藏經의 雕造를 비롯하여 中央이나 地方官署의 官板本과 私板本이 적잖게 出版되었고 高麗後期에 世界最初의 金屬活字를 發明하여 印刷術의 發達에 크다한 貢獻을 한것등이 그 좋은例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朝鮮의 건국후에도 高麗時代의 傳統을 이어 받아 많은 金屬活字本을 印行했으나 中央과 地方官署에서 수 많은 書籍들이 출

(98) 鄭恒雄. *op. cit.*, p.57.

(99) *loc. cit.*

(100) *ibid.* p.58.

版되어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리나 우리나라를 中國과 같은 分類, 目錄 등의 圖書를 整理하는 技術이 일찍부터 發達되어 있지 않았거나 혹은 發達되었다 하더라도 그 記錄이 發見되지 않아 이 分野의 研究實績을 저연시키는 중요한 要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索引의 發遷은 佛教書籍과 깊은 關聯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韓國의 古書를 研究한 黑田教授는 일찍기 “韓國刊行佛書를 探求하는 것은 韓國文化의 歷史的研究에 있어서 缺憾을 具有하는 중요한 特徵이다”⁽¹⁰¹⁾라고 하여 佛書研究의 重要性을 밝힌 바와 같이 韩國書誌研究에 있어서 佛書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다.

高麗이전 즉, 高句麗, 百濟, 新羅까지 文獻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을 추린 李聖儀의 「羅麗藝文志」에서 총 450種가운데 불과 40種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佛敎關係의 書籍이라는 것을 보아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¹⁰²⁾

索引이란 이미 이루어진 著作에 對한 書誌的 案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索引의 起源은 역시 佛教書에 대한 目錄인을 짐작할 수 있다.

現在 전해지고 있는 目錄로서 後代의 索引形成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高麗時代 義天이 編한 「新編諸宗教藏總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義天이 興王寺에 教藏司를 두고 수집한 藏經疏鈔의 雕造事業에 차수하면서國內는 물론이고 멀리 遼, 宋 및 日本에 까지 손을 뻗쳐서 教疏의 類를 수집한 것이 1010部 4857卷에 達하였다. 宣祖 7年(1090)에 教疏 目錄을 編成하여 그 이름을 「新編諸宗教藏總錄」이라 하였다”.⁽¹⁰³⁾

「總錄은 「義天目錄」, 「續藏目錄」이라고 부르는데 上·中·下 3卷으로 되어 있고 1卷은 經部, 2卷은 經律部, 3卷은 論, 集部의 3藏으로 나누어 繼藏 1085部, 4853卷을 目錄하고 있다”.⁽¹⁰⁴⁾

「義天目錄」은 個個의 圖書에 대해 3藏으로 類別하여 書誌的情報를 提供하고 있는 최초의 主題目錄이니 아직 檢索의 機能까지는 갖추지 못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圖書를 類別하여 目錄를 만들면서 分類索引의 基礎를 닦았다는 데에 큰 意義가 있다.

「義天目錄」은 이어 佛教文獻 目錄인 沙門 守其 등이 編한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三十卷」으로 이어진다.⁽¹⁰⁵⁾ “이는 再雕大藏經에 대한 總目錄으로서 高宗時 沙門 守其

*(101) 安春根, 韓國佛教書誌考, 서울, 成進文化社, 1972, p.14.

(102) id. 韓國書誌學, 서울, 崇仁文化社, 1975, p.155.

†(103) 金斗錦,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p.70.

‡(104)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編, 韓國圖書解題, 서울, 同大學 研究所出版部, 1971, p.323.

§(105) 校正別錄의 刊行年代는 소본名 卷首에 “沙門, 守其等 奉勅校勘”이라고 적혀있고 序跋이 전히 없어 그 確實性을 알 수 없으나 高宗朝文士 樂謙의 補闕集 卷下에 “附泰寺僧統守真(其의 誤이나)은 學識이 博精하여 勸을 빙들여 大藏經의 正錯을勘하였다”라고 적혀있어 守其가 高宗 때 經文에 대한 校勘의 責任을 수고 빙다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再雕大藏經이 高宗 38년

등이 勅을 받들어 高麗初雕大藏經本인 國前本과 國後本을 비롯하여 宋本인 開寶勅板大藏經本과 契丹藏經本들을 相互對照하여 校勘하였으며 唐의 智昇이 撰한 「開元釋教目錄」, 圓照가 撰한 「貞元續開元釋教錄」이나 「貞元新定釋教目錄」등을 參考로 하여 만들었다”⁽¹⁰⁶⁾고 전한다.

「校正別錄」은 再雕大藏經에 대한 總目錄으로서 이를 통해 原文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목록을 作成한 것은 現代索引의 概念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形式面에서 現代의 索引의 概念과는 相異하나 그 機能面에서 볼 때 「義天目錄」과 더불어 初期 分類索引의 基礎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校正別錄」의 編成이나 排列法 등도 原始의어서 아직 現代索引의 機能은 다 갖추지 못했다.

이로부터 朝鮮의 明宗時 (1540년 이후)까지 약 3世紀동안 索引의 基礎를 이룬다고 할 만한 目錄類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가 明宗 9年 (1554) 「攷事撮要」의 人道冊板 目錄에 이르러 조금 進歩된 整理方法을 보이고 있다.

八道冊板 目錄의 分類方法은 크게는 8道의 8類로 나누고 각 道下에서 書冊을 간행한 地方別로 書名爲主로 記述하고 있어 각 道 또는 各 地方의 文化事情을 아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¹⁰⁷⁾

그리나 이는 學問을 主旨에 따라 類別하지 않고 地方別로 列舉한 地域順 排列方式을 취하고 있어 分類索引으로서의 段階에도 이르지 못했고 著者名이나 書名으로도 檢索이 어려워 文獻의 整理方法面에선 進步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索引의 機能面에선 뚜렷한 進展이 없었다고 하겠다. 그후 약 1世紀뒤 金然가 「海東文獻總錄」 (1637)을 編纂하면서 비로서 分類索引으로서의 뚜렷한 形態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著者 金然의 故鄉인 安東을 中心하여 그 인근 낙동강연안의 마을에 散在한 藏書들을 직접 調査하여 書冊들의 内容과 序, 跋을 參考로 採錄하여 만들었다”.⁽¹⁰⁸⁾

本書의 體制는 과거 傳統的으로 쓰여왔던 四方法에서 과감히 脫皮하여 著者の 獨特한 分類方法을 썼으며⁽¹⁰⁹⁾ 총 670種을 收錄한 傳記書집 解題書이다.⁽¹¹⁰⁾

이는 지금까지 소개된 수종의 索引를 보다 檢索에 매우 편리하도록 編成되어 있는데 全 分野를 21類로 나누어 細分된 主題下에서 檢索하도록 하면서 主題에 의한 接近

(1251)에 完成되었으니 校正別錄은 高宗 38年에 46年 (1259)사이에 刊行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06) 金斗鎭, *op. cit.*, p. 81.

(107) 金致雨, 典籍의 刊行頻度로 본 王亂以前의 地方文化事情의 分析的考察, 圖書館學論集, 1輯 大邱, 慶北圖書館學會, 1974, pp. 31—51.

(108) 金然, 海東文獻總錄, 서울, 學文閣, 1919. 影印本, pp. 1—7.

(109)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上,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p. 20. (韓國圖書館學叢書 14—1)

(110) 本書에 대해서 과거에는 解題書라고 주로 알아 왔으나 傳記書로서의 性格이 더 強한듯하다.

이는 本文 내용을 보면 人物에 대한 說明을 매우 詳細히하고 있고 人物出處를 먼저 한 다음에 文章, 議論에 言及하였다는 점이 입증해 준다. 즉 撰者로서의 書目판 있는 수 없었고 著者の 行跡을 위주한 解題라는 점이다.

方法을 크게 발전시킨 初期의 分類索引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海東文獻總錄」은 1969년 學文閣에서 影印本을 열매 卷末에 尹炳泰氏가 編한 書名索引와 人名索引를 침부하므로서 그 効用性을 크게 增大시켰다.⁽¹¹¹⁾

한편 「海東文獻錄」과 거의 同時代에 「新編彙語」가 나와 索引의 發達을 促進시켰는데 “이는 古書가운데서 진요한 文字를 뽑아 部門別로 나누어 收錄하고 注釋을 단 일종의 類書로서 중국의 「玉海」등을 모방하여 光海君때 秋潭 金摺 (1535~?)이 編纂했으며 수차의 改定을 통해 朝宗 4년 (105)에 完成된 冊이다.

“古書가운데 진요한 文字를 뽑아 部門別로 나누어 收錄한다”함은 Concordance 와 유사한 것으로서 오늘날 圖書의 個別的 内容에 基礎한 内容索引의 前身이라 할 것이다.

正祖代에 이르러 正祖 個人의 御定, 命撰著書를 目錄하고 解題한 「羣書標記」가 刊行되어 索引의 새로운 方向을 提示했다.⁽¹¹²⁾ 「羣書標記」는 6卷 1冊으로 되어 있으며 147種의 著書에 4503卷을 收錄하고 있는 것으로서 正祖의 全集인 「弘齊全書」에 收錄되어 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즉 중례 나타난 書目은 全般的인 著作을 취급했지만 이는 個人의 著作을 열거하므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個人書誌의 길을 열었다는 데서 큰 意義가 있다.

朝鮮의 好文王으로 불리었던 正祖年間에 또 하나의 書誌가 나와 索引의 새로운 樣相을 제시했다. 이는 正祖大王의 王命으로 編纂된 徐浩修 撰 「奎章總目」(正祖 5年 1781)⁽¹¹³⁾로서 王室圖書館인 奎章閣에 所藏한 藏書에 대한 目錄이며 618種의 冊을 解題한 目錄으로서 오늘날 單一圖書館 所藏資料에 대한 藏書目錄의 始祖가 된다.

19세기 들어 純祖가 正祖의 뒤를 이어 王位를 계승하고 부터 점차로 西洋文物이 朝鮮에 上陸하기 始作했으며 哲宗代에 이르러서는 여러명의 基督教 神父들이 수차에 걸쳐 入國하여 우리나라의 文物이 外國에 소개되고 또 西洋文物을 神父들에게서 받아들이는相互交流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또한 이 時期는 外國人의 손에 의해 典籍의 整理作業이 이루어지던 때이기도 했다. 물론 “外國人에 의한 書誌作業은 우리나라를 위해서이기 보다는 西歐人の 自己中心의이고 慢意의인 것”이 있다.”⁽¹¹⁴⁾

그러나 外國人에 의해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書誌關係가 상당한 수에 이르며 그중 몇 가지는 우리나라의 學術文化와 索引發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중 가장 特記한

(111) 金然, *op. cit.*, pp.1~17.

(112) 菩薩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op. cit.*, p.323.

† (113) 正祖(朝鮮)輯. 群書標記. 서울, 新韓書林, 1970. 影印本, 6卷 1冊.

† (114) 徐浩修 撰. 奎章總目. 碣本, 3冊.

† (115) 洪以燮. 韓國關係歐文書誌小論. 東方學志, 11집. 서울,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70.12. p.273.

만한 첫번째의 書誌作業이 佛人 모리스 쿠랑 (Maurice Courant 1865~1925)에 의해 이루어졌다.

高宗 23년 (1886) 韓佛修好條規가 調印되고 프랑스公使館이 設置되자 高宗 27년 (1890) 모리스 쿠랑 (Maurice Courant)이 公使館職員으로 朝鮮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朝鮮에 있는 동안 朝鮮의 典籍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中國, 日本에서 勤務할 때도 역시 朝鮮典籍에 대해 研究했다) 研究한 결과 1894년 Paris에서 不朽의 大著라고 할 수 있는 「韓國書誌」(Bibliographie Coreenne) 全 3卷과 增補 1卷을 著述發行했다. ⁽¹¹⁶⁾

이는 “朝鮮에서 印刷術이 처음 發明된 무렵부터 1890년 당시까지의 印刷된 冊 3821種에 대한 目錄과 解題를 한 冊으로 9部 36類로 分類하여 目錄한 冊⁽¹¹⁷⁾으로서 分類索引의 編排方式을 취하고 있다.

이는 外國人の 손에 의해 外國에서 刊行되었기 때문에 韓國索引史의 主導 位置는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나 3卷末에 索引目錄이 있고 漢文書目索引이 있으며 또 漢文과 佛文으로 된 人名索引, 國名, 地名索引등이 붙어 있어 완벽한 索引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한국의 索引發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쿠랑의 書誌 이후 우리나라에서 나온 각종 書誌類가 이의 체제를 본받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 영향력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쿠랑의 分類索引의 形式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卷末에 첨부된 각종의 自體索引는 우리나라에선 전혀 새로운 방법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프랑스에선 分類索引의 卷末에 書名, 人名, 地名, 國名등의 각종 索引를 첨부함으로서 本文에의 점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발달되어 있었으므로 쿠랑의 書誌는 프랑스의 索引體制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겠다. ⁽¹¹⁸⁾

또한 쿠랑은 檢索의 편의를 위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主題名을 索引標目으로 채택했는데 이것으로 學術이나 文化的發展으로 새로운 분야의 文獻들이 追加되었음을 알 수 있고, 西歐人이 본 東洋의 知的體系가 東洋인이 그것과는 판이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¹¹⁹⁾

그후 1919년, 韓日合邦이란 名目아래 日帝가 침략한지 10년이 되면서 文化政治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著作들을 解題하였는데 이것이 日人에 의해 이루어진 初期의 分類索引인 「朝鮮圖書解題」⁽¹²⁰⁾ 이다.

(116) Courant, Maurice. *Bibliographie Coreenne*, tome 1-3. Paris, Ernest Leroux, 1894-1897. Supplement, tome 1, 1901.

¹¹⁷⁾ 李皓珪, Maurice Courant과 韓國書誌. 도협월보.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1卷 1號 (1970. 1), pp. 7-11.

(118) Taylor, Archer. *op. cit.*, pp. 221-264.

(119) 鄭駿謨. 文獻分類法. 서울, 中央大學校 出版局, 1971. p. 34.

(120) 朝鮮總督編. 朝鮮圖書解題. 東京, 朝鮮通信社, 昭和 7(1922).

이는 1919년에 初版이 나오고 두번째로 1923년에 追加增補되어 索引이 加해 졌으며 傳統의 經, 史, 子, 集의 四部分類를 擇하고 名部下에 細分된 主題를 부여 하여 檢索을 돋게 한 分類索引의 編排方式을 취하고 있다.

또한 目次의 主題로 檢索하는데 不便한 점을 드기 위해 卷頭에 五十音順으로 書名을 索引하고 編著者의 「王號表」와 「姓名表」를 둘어 書名 및 編著者 小傳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점등은 現代索引으로 轉換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分類方法에 있어서는 틀리나 여러가지의 體制가 亂雜의 索引法을 많이 따른것으로 보이지만 朝鮮의 典籍을 日本에 소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나 “자주 誤謬가 있으며 때로는 奇想天外의 解說이 있어 매우 迷惑하게 하는 점이”⁽¹²¹⁾ 큰 缺點이라 할 수 있다.

「朝鮮圖書解題」가 나을 때를 전후하여 日人손에 의해 반들어진 몇 가지의 索引중 前問恭作 著 「朝鮮의 板本」⁽¹²²⁾과 「古鮮冊譜」⁽¹²³⁾는 특히 유명하다.

「朝鮮의 板本」은 韓國古書의 綜合的인 目錄인 「古鮮冊譜」의 序說이라 할 수 있으며 「古鮮冊譜」는 著者가 50여년에 걸쳐 이룩한 大作으로 朝鮮에서 刊行된 典籍7355種을 書名에 의한 가나(假名)順으로 排列하였다.

그러나 「古鮮冊譜」는 非分類索引인 만큼 著者索引이 침부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檢索에不便함이 좋다.

이무렵 H. H. Underwood 박사의 「韓國關係歐文文獻論」(Occidental Literature an Korea)이 1930년 서울에서 出版되었으며 이어서 많은 韓國關係文獻索引이 外國人에 의해 發行되었는데 그 書名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가) 西洋人에 의한 索引⁽¹²⁴⁾

- ① *Brief List of Reference on Japanes Policy in Korea*. 1923, Library of Congress, U. S. A.
- ② *Bibliotheca Missionum Zehnterb and Missions Literature Japan and Koreans 1800—1909*. International Institut für Missionswissenschaftliche Forschung Aachen, 1938.
- ③ Underwood, H. H. *Occidental Literature an Korea from Early Fines to 1930*. Seoul.

나) 日本人에 의한 索引⁽¹²⁵⁾

（121） 沈鴻後, 韓國學圖書解題, 朝鮮總督府編, 朝鮮圖書解題, 韓國學 2輯, 서울, 永信아카데미, 1974, 附註 p. 19.

（122） 前問恭作, 朝鮮の板本, 東京, 松浦書店, 1923.

（123） *id.*, 古鮮冊譜, 東洋文庫, 1957, 3冊.

（124） 洪似燮, *op.cit.*, pp. 287—291에서 발췌.

（125） 姜周鎮, 韓國書誌의 近況과 課題, 도서관,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30권 3호 (1975. 3), pp. 9—11.

- ① 櫻井義之 編. 「明治年間朝鮮研究文獻誌」 1941
- ② 釋尾春仍 編. 「朝鮮古書目錄」 1911
- ③ 淺見倫太郎 編. 「朝鮮藝文志」 1912
- ④ 朝鮮總督府 編. 「總督府官廳主要刊行物目錄」 1924
- ⑤ 今村螺炎 編. 「李朝實錄風俗關係資料撮要」 1925
- ⑥ 朝鮮關係考古學文獻目錄(考古學志) 1927
- ⑦ 京城大學研究室 編. 「朝鮮關係圖書論文目錄」
- ⑧ 久間健一 編. 「朝鮮の小作關係主要文獻目錄」 1923
- ⑨ 西吉麗鮮齊 編. 「韓國貨幣關係文獻 6種」 1923
- ⑩ 大塚史學會高師部會 編. 「朝鮮史關係論文要目」 1924
- ⑪ 「最近朝鮮史關係圖書紹介」 1924
- ⑫ 櫻井義之 編. 「朝鮮人口勞動關係文獻資料」 1929
- ⑬ 杉山 編. 「朝鮮古建築關係文獻」(朝鮮と建築)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세기 초에서 부터 解放이 되기까지 우리나라의 索引事業은 大部分이 日人們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고 韓國人에 의한 索引誌의 發行은 거의 없어 日帝統治朝間중의 韓國索引은 그대로 暗黑期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特記할 事實은 傳統的인 索引으로부터 現代索引으로 넘어오는 뚜렷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記錄된 索引誌들 중 대부분이 收錄範圍가 제한된 主題索引이나 論文, 定期刊行物記事등에 대한 索引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1920년대의 것들로서 당시 日本에 이미 西洋文物과의 交流로 인하여 現代索引이 基礎를 굳혀 가고 있는 過程이었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종류의 책인들은 前代에 비해 훨씬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당시의 韓國典籍研究의 流行에 便乘한 탓인지 그 이후 30년대와 40년까지 연결되는 지속적인 발전은 없었다.

1945년 日帝로 부터 감격적인 解放을 맞게되자 새나라의 건설에 대한 念願이 社會各階各層에서 多角的인 형태로 表面化되기 시작했다. 圖書館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여러곳에서 圖書館이 新設됨에 따라 圖書館의 實務者養成과 現職 圖書館人에 대한 教育이 時急하게 되었다.

이러한 要請에 따라 1946년 4월 國立圖書館에서 처음으로 圖書館講習會를 開催하고 1950년 6. 25 동란이 나기까지 매년 시행되었다.⁽¹²⁶⁾ 여기서 다수의 人員이 배출되었으나 그후에 일어난 6. 25 동란으로 講習會도 중단되고 배출된 司書도 그다지 영향력을 발휘하기 못했던 것 같다.

(126) Lee, Jai-chul, Survey of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 人文科學 16 칡. 서울,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 1966. 12, p.73.

따라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近代的인 圖書館教育이 實施되어 새로운 형태의 圖書館奉仕와 書誌作業이 이루어진 轉機를 마련했으나 6.25 동란으로 인하여 그 効用性이 거의 나타나지 못했으며 索引誌의 刊行에 있어서도 뚜렷한 成果는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解放 이후부터 動亂직전까지 우리나라의 索引史에 있어서 두가지의 중요한 意義를 갖는 때이기도 하다.

그 하나는 現代的인 索引, 즉 西洋의 索引法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그 형태를 모방한 索引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定期刊行物記事索引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¹²⁷⁾

解放후 美軍의 進駐와 더불어 美國의 文化와 學術이 수입되게 되었으며 西洋의 索引法도 이 때를 前後하여 수입되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1949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國立中央圖書館에서 新聞記事를 索引하여 「1945년 이전 3대신문소재 국어국문학관계 연구논문목록」이란 제목으로 國立中央圖書館報인 「文苑」37호의 한記事로 실리게 됨으로서 新聞記事索引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¹²⁸⁾

이듬해 1950년 서울大學校 師範大學에서 「史學雜誌」所收國語國文學關係研究論文目錄을 雜誌「語文」의 한記事로 신게되어 定期刊行物의記事를 索引한 最初의 文獻이 되었다.⁽¹²⁹⁾

이들 두 索引은 다같이 圖書의 리스트가 아닌 定期刊行物 속의 個別의記事를 索引하였고 索引의 編排方式에 있어서도 美國의 *Reader's guide to periodical literature*를 많이 본받고 있다.

“우리나라 雜誌(定期刊物)의始初를 1895년 2月에創刊된 「親睦會會報」로 본다면⁽¹³⁰⁾ 실제로 55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후 1950년에서 53년까지 계속된 韓國動亂과 그 이후 모든 방면에서의 혹심한 피해에 대한 복구작업관계로 50년 대말까지 索引의發展은 정체된 상태에 있었다. 1950년에서 56년사이에 진행된 書誌類가 거의 없다는 사실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1957년 미국의 조오지 피바디(George Peabody) 師範大學의 教育使節團이 한국 사범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내한하여 延世大學校에 1年과정의 高級司書養成機關인 圖書館學校와 學部過程의 圖書館學科를設立함에 따라 現代的인 圖書館教育이 本格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127) 解放前에도 日人們에의한 索引중 現代索引法을 採用한 定期刊行物記事索index이 있었으나 이는 日人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韓國索引史의 自體는 여기어렵다.

(128) 國立中央圖書館編. 1945년 이전 3대신문소재 국어국문학관계 연구논문목록. 文苑, 37號.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49. 3. 9回 인재.

(129) 서울大學校 師範大學編. 「史學雜誌」所收 國語國文學關係研究論文目錄. 語文, 2卷 2號.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1950. 4.

(130) 金根洙 編著. 韓國雜誌概觀要 號別總目次集. 서울, 永信아카데미 韓國學研究所, 1973. p. 13.

사실 西洋索引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시기는 1950년대 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前記한 바와같이 1950년대 후반부터 現代的 圖書館學教育이 본격화되었고 이러한 教育의 결과 1960년대 초반부터 西歐의 索引法을 따른 각종 인지가·체속해서 刊行되었기 때문이다.

西洋索引法의 도입에 따라 1960년대 초부터 傳統의 索引 즉 圖書目錄類索引과 現代索引 즉 內容索引이나 記事索引등이 어느정도의 구별을 갖게된다.⁽¹³¹⁾

1950년대 말기와 60년대초 韓國索引史에 있어서 紀念한만한 研究가 李載喆教授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1959년 「主題名目錄의 研究」⁽¹³²⁾와 1961년 「主題名標目表」⁽¹³³⁾를 著述 發刊하여 主題名에 의한 排列을 子母順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辭典體排列을 가능하게 했으며 檢索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相互參照法을 完成시켰다.

李載喆教授의 이러한 一聯의 研究는 索引를 위주로 한것은 아니고 圖書館의 目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나 196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각종 索引와 編成에 至大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60년대 초반에 간행된 책인은 수직으로 상당한데 그중 후대의 索引誌나 學術研究에 크게 공헌한 索引誌단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① 中央大學校 教育學科 編. 韓國教育目錄 1~. 서울, 中央大學校出版局, 1960~ 冊
- ② 國學研究論著總覽刊行會 編. 國「學研究論著總覽」. 서울, 乙酉文化社, 1960.
- ③ 國會圖書館 編. 「國內刊行物記事索引」1945—1959. 서울, 國會圖書館, 1960.
- ④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編. 「高麗史索引」.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61
- ⑤ 韓國圖書館協會 編. 「學術雜誌索引 1960—62」.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3.
- ⑥ 國立中央圖書館 編. 「韓國書目」.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64.
- ⑦ 國史編纂委員會 編. 「朝鮮王朝實錄索引」.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4.

「國內刊行物記事索引」은 國家書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1945—59년 사이에生產된 各種記事를 총망라하여 收錄하므로서 당시의 學術發展에 큰 공헌을 했다. 그후 1960—62년 사이의 刊行物은 韓國圖書館協會에서 「學術雜誌索引」이란 題名으로 刊行되었고 그 이후는 國會圖書館에서 定期의으로 刊行하고 있어 폭넓은 書誌的情報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韓國書目」도 國家書誌로서 1945—62년 까지 國내에서 出版된 圖書, 定刊物,

(131) 물론 이후에도 書目과記事를 混合排列하여 ○○關係 文獻目錄이라는 표현적인 書名을 주는 예가 자주있어 확실한 區分線을 짓기가 곤란하여 오늘날까지도 索引파 目錄 이런 用語가 書名상에서 거의 구별없이 쓰이고 있어 收錄內容으로 區分하는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자주 있다.

(132) 李載喆. 主題名目錄의 研究. 서울,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1959.

(133) id. 主題名標目表. 서울,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1961.

學位論文에 대하여 目錄한 圖書目錄類索引이며 그 이름해 부터는 「大韓民國出版物總目錄」이란 標題로 오늘날까지도 刊行되고 있다.

1960년대 초반의 索引誌를 代表할 만한 것으로서 「韓國教育目錄」을 빠트릴수 없는 데 오늘날까지도 계속 刊行되고 있어 教育學研究者와 教師들에게 必携의 參考書가 되고 있다.

1965년 이후의 韓國索引의 發達에 대해선一律的으로 論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이때부터 現代索引의 黃金期라고 할만큼 많은 索引誌들이 쏟아져 나와 個別의 論及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뚜렷한 경향은 定期刊行物의 索引이 圖書目錄類索引보다 그 수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 内容索引이나 圖書目錄類索引 索引의 대다수라는 판념을 크게 뒤바꾸어 좋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때부터 索引은 内容索引와 圖書目錄類索引,記事索引의 세 가지 種類로 분명히 區分되었다고 할 수 있다. (134)

1960년대 후반의 索引事業은 國會圖書館의 努力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國會圖書館은 前記한 「國內刊行物記事索引」과 「定期刊行物記事索引」외에도 수많은 전문분야별 색인을 간행하여 韓國의 現代索引發達에 크게 기여했다. 國會圖書館은 專門 分野別索引事業 외에 國內 31個 圖書館所藏 外國學術雜誌의 綜合目錄을 作成하여 그 所在를 指示해 주므로서 學術文獻의 相互利用을 增大시켰으며 (135), 1968년엔 우리나라에서 古代부터 韓末에 이르기까지 出刊된 刊, 築本 37000 여종을 調査하여 「韓國古書 綜合目錄」(136)을 編纂했는데 이서 書誌의 事項과 더불어 所藏處를 表示해 주므로서 古典의 所在를 풁넓게 檢索할 수 있도록 하여 韓國學研究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한편 이時期는 單一主題을 취급한 主題索引이 상당수 發刊되어 해당분야의 學門研究를 促進시켰는데 그중 중요한것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高原錫, 洪淳英 共編, 韓國圖書館關係文獻目錄. 서울,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65.
- ② 國會圖書館 編, 韓國史研究論文總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집: 1967. 2집: 1970.
- ③ 金泰坤 編, 韓國民俗關係文獻目錄 1945—60. 韓國民俗學 1집. 서울, 韓國民俗學研究所, 1969. 12. pp. 137—145.
- ④ 서울大學校 圖書館編, 韓國書誌關係文獻目錄. 圖書館報, 4號, 서울大學校 圖書館, 1966. 12. pp. 27—75.

(134) 그러나 아직까지도 索引誌의 書名에 索引이라 用語와 目錄이란 用語가 共存하고 있는데 이 것은 編者가 아직도 索引과 目錄의 概念이 뚜렷히 區分되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135) 國會圖書館編, 學術雜誌綜合目錄, 外國篇. 서울 國會圖書館, 1966.

(136) id., 韓國古書 綜合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8.

1969년 4월 서울大學校圖書館에서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및 각分館과各研究機關에入手되고 있는外國定期刊行物에 대한「외국학술잡지색인」⁽¹³⁷⁾을發行한 이래 수개의大學圖書館에서自館所藏定期刊行物의記事索引를發刊하여 깊이있는参考奉仕를수행하였는데 그중 중요한索引은 아래와 같다.

- ①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정기간행물기사색인 1967」. 年刊, 1969~
 - ② 淑明女子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숙대간행물색인 1955—70』. 서울, 同圖書館, 1971.
 - ③ 淑明女子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 정기간행물기사색인』. 1970. 年刊, 1972~
 - ④ 建國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건대간행물기사색인 1952—70』. 서울, 同圖書館, 1973
- 1970년에 들어와 東亞日報社의 오랜宿願이던「東亞日報索引」이 李載喆教授에 의해 만들어져 단일신문에 대한記事索引의嚆矢를 이루게 되었다.⁽¹³⁸⁾는 점은 1970년대索引界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는 主題와 著者에 대한索引으로서⁽¹³⁹⁾ NYT Index의 主題名標目下에記事內容을要約한 方式과 Elrod의所在位置만 알려주는간략색인을 결충한記述方式을 취하고 있는데 거의安全한相互參照法을 사용하므로서檢索를 편리하게 해주는重要的參考資料이다.

1970년 이후에出版된各種索引誌는 상당히 많아 일일이 열거하고 그공천한바나編排方式은 적을수 없으나索引刊行에 있어서 몇가지一致된 관점은 아래와같이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定期刊行物에 대한索引이圖書目錄類索引의增加보다훨씬 빠른 속도로增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定期刊行物이學問에 기여하는바가오늘날엔圖書이상의 위치를점하고있다는國際的인 추세를잘 반영하고 있다.

둘째는索引의類別이 이미確定되고 그취급영역이分明해졌는데도 아직까지‘索引’과‘目錄’이란單語가混用되고 있다는 점이다. “解放이후부터 1972년까지刊行된索引誌 76種중‘目錄’이란書名을 사용하고 있는索引誌가 40種, ‘索引’이란用語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18種, 기타가 11種”⁽¹⁴⁰⁾으로 나타나 있음이 이를 잘立證해 준다.

셋째索引의檢索方法에 있어서辭典體排列을採擇하는圖書가 많아졌으며分類索

(137) 서울大學校 圖書館 編. 『서울대학교 외국학술잡지색인』. 季刊, 서울大學校圖書館, 1969. 4~

(138) 東亞日報索引〔李載喆〕編. 1920—1922, 1923—1925, 1926—1928, 1929—1931, 서울, 東亞日報社, 1970. 4冊

(139) “에게 主題와 著者索引이나 主題名化하지못한固有의記事(예, 회신수신, 휴지통)에 대해 서는標題記入을내주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辭典體索引이다”라고 李教授는 東亞日報索引의性格에 대해 評及하고 있다.

李載喆. 신문기사색인에의이론과실제. 東亞日報索引 편찬의 경우. 人文科學. 22輯. 서울,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69. 12. p. 85.

(140) 崔昌均. op. cit., p. 22.

引의 形式을 취하되 著者名索引를 침부하여 신속하게 檢索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는 점이다. 이것은 索引의 編排方法이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利用者中心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nett에는 國家的인 次元에서의 索引事業이 國會圖書館과 國立中央圖書館에서 중복되
는 現象이 점차 固定되고 있다는 점이다.

出版情報가 소수였던 과거에는 個人의 能力으로 索引作業이 가능했으나 오늘날과 같
이 洪水를 이루고 있는 때에는 國家的인 調整下에 書誌事業이 이루어져야 할 必要性
이 크게 대두된다. 그러나 上記 兩大 國家機關에서 서로 相互 되는 索引事業을 遂行한
다면 여러가지 면에서 볼때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自明하다.

따라서 이 兩機關에서 索引한 分野를 서로 분담하여 特性化시킨다면 우리나라의 索
引發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IV. 要約 및 結論

이상으로 索引의 概念을 定立하고 그 發展過程을 概觀的으로 살펴보았다.

索引의 發展은 東·西洋을 막론하고 처음부터 索引自體가 獨立 生成되어 發展해 온
것이 아니고 目錄과 깊은 關係를 가지면서 社會變化와 出版文化의 發達에 상당한 영
향을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過程은 東·西洋의 사이에 상당한 差가 있다. 즉 서양에서는 索引의 前
身인 Concordance로 부터 漸進的 發展을 이루어 現代에 이르는 系統的인 라인(line)
이 있었으나 東洋의 경우는 傳統的인 索引가 存在하여 持續되어 오던 중 새로운 西洋
索引法이 導入되어 共存하는 경향을 보였다.

西洋과 東洋에서의 發展過程을 要約하면 :

1) 西洋索引史 : Taylor는 索引의 始初를 Gesner의 *Pandectae*로 보고 있으나 1247
년의 *Concordance of the Bible*이 처음이었으며 1545년 이후의 Gesner의 一聯의 著
作중 3권인 *Partitiones*에 이르러 索引의 基礎가 確立되었다. 이로부터 주로 分類索引
의 方式을 따른 索引들이 계속 진행되어 나왔으나 무연한 進展을 보이지 못하다가 10
세기들어 알파벳順 索引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683년 최초의 定期刊行物索引인 *La France Scavante*가 나온 뒤 19세기 이후에야
그 効用性이 增大되었으며 19세기 종업 Poole의 *An Alphabetical Index*에 이르러 現代索引으로
轉換하는 轉機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부터 圖書目錄類索引과 定期刊行物
索引가 완전히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며 主題名標目이 細分되고 相互參照를 使用하여
檢索를 편끼 만들었다. 또한 19세기 후반부터 索引에 대한 學問的研究가 시작되었다.

는 점도 중요하며 Cutter의 理論에 따라 辭典體排列方法이 確立되었다.

20세기 들어 索引은 美國을 중심으로 發展하였는데 특히 Wilson 出版社가 크게 공헌했다. 그리고 綜合索引으로부터 主題索引으로 轉換하는 경향이나 *The Times Index*에서 비롯한 新聞索引의 嘴矢는 20세기 索引의 뚜렷한 前進이다.

2) 中國索引史：中國의 索引은 漢初의 「兵錄」을 그始源으로 삼기도 하나 확실치 않고 「七略」에 이르러 分類索引의 方法을 처음 試圖했으며 「漢書藝文志」에서는 相互參照를 처음 使用하여 中國索引를 進一步시켰다. 이로부터 여러 時代를 거쳐오면서 分類索引은 크게 發達하였으나 現代的索引의 機能은 發見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類에 따라 檢索하는 類書는 1700여년 전부터 나타났고 人名, 地名辭典은 明清時代에 적잖게 편찬되었는데 이들은 現代索引의 機能을 가진 것이 많았다.

그후 清의 章學誠에 이르러 中國索引은 하나의 頂點을 이룬다. 그는 現代索引의 必要性을 論하고 互見之法 (Cross reference)과 重復互注의 法 (see also reference)을 完成시켜 後代의 索引發展에 크게 공헌했다.

民國이래로 西洋의 索引法이 輸入되고 얼마동안은 傳統的인 索引과 共存하는 듯 하였으나 1930년대 이후부터 定期刊行物索引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3) 韓國索引史：우리나라의 索引은 大藏經總目錄인 「義天目錄」(1090년)을 起源으로 삼으나 보다 發展된 索引의 形態는 「海東文獻總錄」(1637)과 「新編彙譜」(165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海東文獻總錄」은 現代分類索引法을 확립 시켰으며 「新編彙譜」는 内容索引의 前身이라고 할 수 있다.

正祖年間에는 「蠶書標記」라는 個人書誌와 「奎章總目」이라는 藏書目錄이 나와 索引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그후 1894년 Maurice Courant에 의해 Paris에서 간행된 *Bibliographie Coreenne*는 완전한 형태의 索引으로서 장차의 韓國索引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초부터 解放이 되기 까지는 주로 日人에 의해 索引作業이 이루어 졌는데 대개가 分類索引의 形式을 갖추고 있었다.

解放이후 西洋索引法이 輸入되고 난뒤의 索引事業은 定期刊行物 위주였다. 특히 1960년 이후의 定期刊行物索index는 상당한 수에 이르는데 주로 主題索引가 많았으며 이때부터 傳統的인 索index와 現代索index가 뚜렷이 区分되는 경향을 보였다.

参考文獻

가. 國內文獻

1. 姜周鎮. 韓國書誌의 近況과 課題. 도서관, 30卷 3號.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75. 3, pp. 7-12
2. 國會圖書館 編. 主要各國의 出版文化와 圖書館. 서울, 國會圖書館, 1971. (圖書館參考資料第 3輯)

3. 金斗鉉.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4. 安春根. 韓國書誌學. 서울, 景印文化社, 1975.
5. 李載皓. 新聞記事索引法의 理論과 實際. 東亞日報索引題 친의 경우. 人文科學, 22輯. 서울,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69.12. pp. 83—99
6. 朝鮮總督府編. 朝鮮圖書解說. 東京, 朝鮮通信社, 昭和 7(1922)
7. 鄭馳謨. 文獻情報學의 歷史的 背景. 서울,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1974]
8. 鄭馳謨. 參考文獻概說. 서울,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1969.
9. 崔昌均. 韓國의 定期刊行物記事索引誌에 대한 概觀的研究. 서울,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73.
10. 韓國學 2輯. 서울, 中央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74년, 版之
11. 洪以燮. 韓國關係歐文書誌小論. 東方學志 11輯. 서울,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70.
12. pp. 723—291
12. 玄圭燮. 定期刊行物의 書誌組織論試稿. 동대문도서관보, 3호. 서울, 市立東大門圖書館 1974. pp. 55—65.
- 다. 中國文獻.
13. 倪賡坤. 圖書館編目學. 中國圖書, 出版事項不明.
14.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臺北, 商務印行館, 民國 46(1957).
15. 鄭恒雄. 中國索引의 發展過程. 沈鶴俊譯, 도서관, 30卷 1號.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75 1. pp. 53—58
16. 許世英. 中國目錄史. 臺北, 中華出版事業委員會, 民國 43(1954)(現代國民基本知識叢書2)
- 다. 西洋文獻.
17. Collison, Robert L. *Index and Indexing*. New York, John de Graff Inc. 1959.
18. Harrod, Leonard M. *The Librarian's glossary of terms used in librarianship and the book crafts*. London Andre Deutsch. 1971.
19. Hessel, Alfred. *History of Libraries*, tr. with supplementary material by Reuben Peiss. 李春熙譯. 西洋圖書館史.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20. Knight, G. Norman. *Training in indexing, a course of society of indexers*. Massachusetts, MIT Press. 1970.
21. Lawler, J. *The H.W. Wilson Company: half a century of bibliographic publishing*. Minneapolis, Minnesota Univ. press, 1950.
22. Metcalfe, John. *Subject classifying and indexing of libraries and literature*. Sydney. Argus and Robertson. 1959.
23. Swanson, Don R. Indexes and Indexing, in: *Encyclopedia Britannica*, 1970 edition, Vol.12. London, Encyclopedia Britannica Inc. 1970. pp.244K~244 Q.
24. Taylor, Archer. *General subject indexes since 1548*.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 1966.
25. Witty, Francis J. Early Indexing Techniques; a study of several book indexes of the fourteenth, fifteenth, and early sixteenth centuries. *Library Quarterly*. Vol.35, No.3. (Jul. 1965). pp.141—148.

A Study on History of Index

Park Joon Shik*

[Summary]

Indexes has not developed as an independent branch in library science from the beginning, but it has gradually evolved in a close association with catalog and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 development of publishing processes and of the rapid social changes.

Historically, index in the West can be traced back to eariler concordance. On the other hand, index in the East does not show a continuous development. It started with book catalog, but other types of indexing were later adopted from the West. Indexing in the West and in the Eas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he West, Taylor considers Gesner's *Pandectae* was the first index but the *Concordance of the Bible* in 1247 was the first true index. Indexing method was first established later in 1545 in Gesner's *Partitiones* which appeared in three volumes. Classified index appeared after *Partitions*, but alphabetically ordered index was not developed until th eseventeenth century.

The periodical index of *La France Scavante* in 1683 proved its value, and Poole's *An Alphabetical Index* in the nineteenth century became the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indexing. After Poole's *Index* appeared periodical index and book catalog gradually began to be treated separately, and subject index and cross reference were incorporated into indexing. Also dictionary arrangement of the indexed items was adopted in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after Charles A. Cutter developed his theory of rules for dictionary catalog and systematic studies of indexing were carried out by many scholars.

In the twentieth century, index was mainly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specially by Wilson publishing Company. The general trend is to move away from the general index to subject index. Also the

* Reference Librarian, Keimyung College Library

newspaper index such as *The Times Index* is a landmark in the history of indexing.

2) In China, there are some evidences that *Bingluh*(兵錄), was the first index, but unfortunately the book itself has not been found as yet. Although the first classified indexing was attempted in *Chiliueh* (七略), and the cross reference was used in *Hannishuyithtwentyh*(漢書藝文志), however, indexing in China did not develop to assume the various functions of today.

However, rhyming dictionaries since 1700 years and biographical and geographical dictionaries since Myng Dynasty assumed the modern function of indexing. Moreover Jang Shyue-cherng(章學誠) of Ching Dynasty established "see" and "see also" references, and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indexing is highly valued. Western methods of indexing were first introduced into China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民國), and the periodical indexing bega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indexing since 1930's.

3) Although a kind of indexing can be found in *Euicheonmokrok*(義天目錄) of 1090, a real index form can be found in *Haedongmoonheonchongrok*(海東文獻總錄) of 1637 and *Sinpyunwhio*(新編彙語) of 1653 in Korea. The first classified index may be found in *Haedongmoonheonchongrok*(海東文獻總錄), and the first content index in *Sinpyunwhio*(新編彙語). Later, during Jeongjo era (正祖年間) appeared, a private bibliography, *Kunseopyogi*(禁書標記) and *Kujangchongmok*(奎章總目), a library catalog, were the new important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index in Korea.

In 1894, *Bibliographie Coreenne* by Maurice Courant published in Paris was the first complete form of indexing and it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indexing in Korea has been doubtlessly great.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ndexes were compiled mostly by Japaness. Most of them were classified indexes.

Western indexing methods were introduced to Korea only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onventional indexing methods and the modern indexing methods are both used in Korea today, but the emphasis has shifted to periodical index.